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FEB 9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42 1982년 2월 8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February 8,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헌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경제악화로 실업률늘어나자
취업에 인종차별
소수민족 수입은 평균이하

실업률이 높아갈수록 취업시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어 메트로・토론토의 사회, 경제 발전에 큰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메트로・토론토 사회계획위원회(Metro Toronto Social Planning Council)가 연방정부의 보조로 실시한 조사연구결과 밝혀졌다. 3일 발표된 조사보고서는 현재 메트로・토론토지역에는 9만명의 실직자들이 일을 찾고 있으며, 4~5만명의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풀타임을 원하고 있는 최악의 상태로, 경제안정으로 여러 인종및 민족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의 훌륭한 모범을 보였던 토론토의 이미지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 보수가 좋았던 제조업계의 직업이 급격히 줄어들자, 저임금과 안정성이 없는 서비스업 계통의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제조건의 악화로 취업시 차별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취업기회의 문이 좁아질수록 고용주들은 고용인을 채용할 능력평가와 같은 객관적 기준을 사용치 않고 인종(race), 성(sex), 연령, 민족(ethnicity) 과 같은 피상적 기준을 더 자주 사용한다고 밝힌 보고서는 이같은 고용주의 편견은 근로자들이 취업경쟁시 다른인종과 민족배경을 가진 근로자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보고서가 지적한 주요쟁점은

●고용과정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많은 흑인, 아시아인및 남미인들이 뒤로 처진다. 이들은 메트로 토론토인구의 1/6을 차지한다.

●자마이카인등 서인도인들의 일반적 연평균 수입은 메트로주민보다 $2,400 적다. 소수민족 그룹출신 여성들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웨스트・인디안과 중국계 여성들은 각각 $3,800, $3,500 적게 번다.

●메트로지역의 인도・파키스탄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실업률은 일반 메트로주민의 2배가 넘는다.

●대체적으로 소수민족 출신 2세들이 그들부모보다 높은 신분이 되리라는 꿈을 갖고 있지 않는다.

●서인도인의 70%는 직업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백인들도 이에 동의한다.

한 조사에서는 80%의 백인들은 서인도인들이 고용주에게 차별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높은 실업률로 인한 영국이 현재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예로 들고 이민, 다인종, 다민족노동력및 차별등과 관련한 영국사회 발달형태는 캐나다와 비슷하며 수년 앞선 것에 불과하다.

캐나다의 실업률이 더 증가하면 이곳에도 영국에서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조사연구의 책임자였던 토론토대학교 사회학교수 리온・무진스키는 토론토시의 실제적 위험은 폭동이 아니라, 인종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계층간의 갈등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돈・밀지역의 한 공장을 방문했던 무진스키교수는 별다른 기술 없이도 해낼 수 있는 생산근로자들은 모두 흑인이나 아시아인들이었으며, 기술공이나 사무직 근로자들은 모두 백인들이었음을 발견했다.

그는 소수민족(Minorities)이 가진 직업을 "가장 저임금의 막다른길"이라고 표현하여 이같은 계층형성은 코뮤니티와 직장에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토론토의 소수인종 그룹이 널리퍼진 취업시차별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사회계획위원회의 이번 연구조사는 69~79년 사이에 토론토에서 실시된 수많은 조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은 불법이라고 못박은 이 보고서는 「온타리오인권위원회」의 활동이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이 보고서는 차별금지법의 강력한 실시와 고용시 고용주의 무의식적인 차별을 제거하는 교육실시를 촉구했다.

◇경제악화로 가장 타격을 받은 퀘벡주의 르네・레베끄 수상이 눈을 맞으며 쓸쓸히 등청하고 있다. 지난번 헌법문제에서도 가장 소외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경제문제에도 주수상들중 선봉으로 연방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금리인하는 기대 못해
연방・주수상 경제문제협의

(오타와)캐나다인들이고금리 압박에서 벗어날 전망이 없는 것이 밝혀졌다.

2일 주수상회의에 나온 제랄드・보위 중앙은행 총재는 당분간 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장장 4시간동안 계속된 이날 회의에서 주수상들은 연방정부에 즉각적으로 금리를 인하, 고용을 창출하고 위기에 빠진 경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경제문제에 관한 연방주수상연석회의에서 주수상들은 일치단결, 매케큰 재무장관에게 인프레이션 대책을 바꿔, 캐나다 달러가 미국달러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금리를 인하하라고 주장했다.

보위 캐나다중앙은행 총재는 캐나다 금리를 미국금리보다 인하시켜, 캐나다 달러의 가치하락을 볼 수만은 없다고 주수상들에게 설명했다.

지난 수개월간 계속 떨어졌던 미국의 금리는, 이번주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 일부은행에서는 단기우대금리가 연 15.75% 까지 올랐다.

항상 미국 금리보다 122% 높게 적용됐던 캐나다 금리는 4일부터 다시 오를 예정이다.

지난주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는 14.59%였다.

한편 트루도수상은 연방및 주수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우리의 경제가 아주 곤경에 빠졌으나 최악의경지는 이미 지났다"면서"앞으로 캐나다의 경제는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전화요금 또 인상
가정용기본요금 $11.65

벨캐나다는 오는 5월1일부로 전화요금을 8% 인상시킬 계획이다.

5개월만에 두번째가 될 이번 인상으로 토론토의 전화요금은 가정용 기본요금이 종전의 매월 $10.80에서 $11.65로, 비지니스용 기본요금은 매월 $38.40에서 $35.55로 오른다.

공중전화와 장거리 전화요금은 오르지 않는다.

벨캐나다는 지난해 10월 약 15% 정도 요금을 인상했었다.

벨캐나다의 요금인상 계획은 캐나다 라디오, TV 및 전신위원회(CRTC) 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CRTC는 지금까지 벨・캐나다의 부분적인 요금인상을 거절한 적이 없다.

자동차스티커 28일까지
수수료 4기통이 $30

토론토시의 모든 비영업용 자동차는 오는 28일 까지 82년도 「면허 딱지」(licence sticker)를 부쳐야한다.

수수료는 작년과 같은 4기통 엔진차량이 $30, 6기통 $45, 엔진배기량이 6.5리터 이하인 8기통은 $60, 배기량 6.5리터 이상 으로 77년 12월1일이후 등록된 8기통 차는 $80이다.

면허갱신용 서류는 각지의 교통부산하 면허발급사무소와 리커(Liquor) 스토아에서 얻을 수 있다.

보다 빠른 수속을 위해서는 미리 신청서를 작성했다 자동차 소유증(Vehicle Permit)과 함께 수수료를 내면 된다.

오늘의 예금금리 (1월29일 현재)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기예금	60~89일	14.25%	12.75~13.0%
보통예금 DAILY INTEREST		12¼%	12%

보험이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금주의 행사▷

(2월8일~14일)

◇8일(월)하오7시30분 임마누엘교회 남신도회 헌신예배
강사 : 김정석 교수
곳 : 임마누엘한인교회(63 Dunblain Ave.)
연락처 : 488-4141

◇12일(금)하오7시 실업인협회정기이사회
곳 : 한인회관 회의실(20 Mobile Dr.)
연락처 : 752-7771

◇12일(금)하오6시30분 민족상위원회 82년도 제1차모임
곳 : 클링톤하우스(693 Bloor St. W.)

◇13일(토)하오6시 성균관대학교 정기총회
곳 : 클링톤하우스 (693 Bloor St. W.)
연락처 : 884-2084(김영창)

◇13일(토)하오 7 시 합동신년친목파티(토론토대학 학생회, 한인컴퓨터회, 재미과학기술자협회)
곳 : Tartu Cafeteria(310 Bloor St. W.)

◇14일(일)하오2시15분 벧엘교회 여선교회 주최강연회
강사 : 김보경 박사
연제 : 이민생활과 가족관계
곳 : 벧엘교회(395 Old Yonge St.)
연락처 : 496-2967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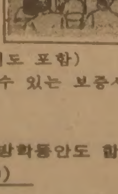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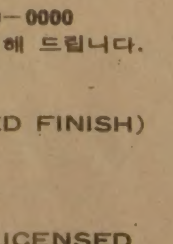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ER TRAINING CENTRE
운전을 배우실 분들!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으니 택해 보세요.



1. 완전코스($199.00)
●25시간의 실내강의
●10시간의 운전교습(운전시험도 포함)
●차보험 액을 최대로 할인할수 있는 보증서 발급
●인컴택스 공제
※저녁과 토요일, 그리고 학교방학동안도 함.
2. 짧은(MINI)코스($69.00)
●3번의 운전레슨
●운전시험때 차대여해줌
3. 씽글(SINGLE) 레슨($15.00)
●한번의 레슨
※운전시험때 차대여는 $15.00
courses approved & registered by the Ontario Safety League
2489 BLOOR ST. W. STE. 210
(JANE지하철 근처임)
766-4441, 766-4644
월~금 : 9시~6시30분, 토 : 9시~1시까지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합동신년 친목파티
토론토 대학학생회(KUTSA) 한인컴퓨터회(COSKA), 재미과학기술자협회(KSEA) 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년 친목파티를 갖고저 하오니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1982년 2월13일(토) 오후7시
장 소 : TARTU CAFETERIA
310 BLOOR ST. W.
(연합교회옆 빌딩)
회 비 : 멤버학생및 각회학생회원 $5
멤버가 아닌학생 $7
성인회원-카플당 $22
싱 글 $12
※ 회비는 부페스타일 식사포함, 캐쉬바, 엔터테이먼트-DJ. LIVE MANY MORE
토론토대학학생회 회장 천명호
한인컴퓨터회 회장 이태영
재미과학기술자협회온타리오 지부장 신복균

2ND CLASS MAIL NO. 5248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상점이 요새로 변한다

교포업소들 문걸고 장사·방탄유리등 보안에 신경

◇…LA 한인타운내에서 최근들어 강도사건이 부쩍늘자 각한인업소들은 요새를 방불케할 정도로 상점출입구 및 내부의 시큐리티시설을 보완하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들끓고 있는 강도, 날치기등 각종범죄에견디다못한 교포업소들은 곳곳마다 대낮에도 출입문을 걸어닫아 잠그고 있다. 또한 「Appointment Only (예약손님)」의 팻말까지 내걸고 심지어는 한인 이외의 손님은 아예 사절하는등 기현상을 보이고있다.…◇

(LA지사)

이러한 시큐리티 도어(내부에서 열어주게 돼있는 출입문)에다 또 방탄유리, 리모트컨트롤 알람장치를 비롯 종전의 권총류뿐만 아니라 일부업소는 「자동소총」까지 비치하고 있는실정이다.

월셔 P보석상의경우 실내천정 곳곳에 총탄구멍이 나있는 가운데 실내의 권총-4자루, 샷건-1 외에도 M-16 자동소총까지 숨겨놓고 있으며 이 중무장도 모자라 방탄유리된 3중출입문까지 갖추고 있다.

지난 13년간 영업해온중에 연평균 1건이상 꼴로 강도와 총격전을 벌였었다는 이 업소의 주인P씨는「미국에서 장사한다는 것은 하나의 전쟁이라고 밖에 할수없다」고 말하고 「이러한 범죄는 지난1-2년 사이에 두드러지게 심해진 경향」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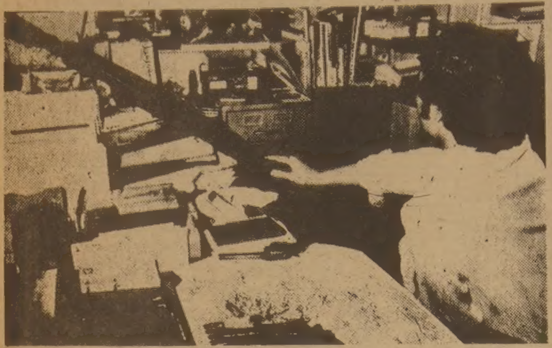
P씨는 또 「해마다 피해를 당할때마다 자체방비를 위해 설치하다보니 지금은 방탄출입문이 3중까지 된것」이라고 하며 「한번 설치에 1만달러 정도가 드는 이러한 방어수단 이외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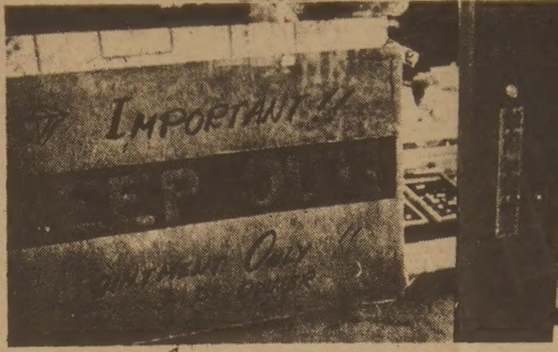
또 W쇼핑센터에서 어린이 옷가게를 경영하고 있는 K여인은 「한개에 20-30달러짜리가 채 못되는 옷가지를 팔기위해 문까지 걸어닫는 시큐리티 도어까지 장치하고 온종일 전전긍긍하며 신경쇠약까지 걸릴 지경」이라고 전하고 「일을 당한후 신고해봤자 늑장출동하기 일쑤인 경찰은 소용없다」고 말했다.

V쇼핑센터의 경우 시큐리티 도어를 갖춘 업소가 늘고 있으며 가게 유리창을 통해 서로 마주보게 돼 있는 상가구조로 이웃 망보기등의 범죄예방책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이 상가 30여 상인들은 현재 야간만 맡고 있는 무장경비원을, 기금을 모아 24시간 경비체제로 바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상인들에 의하면 최근의 이러한 잦은 타운내의 범죄는 자체방어가 약한 동양인들이라는 점과 또한 일부상가구조가 지나는 행인을 비롯, 외부에서 잘 눈에 띄지 않는것 또한 큰원인으로 풀이하고 있다.





▲각종자체방어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인업소들— 「예약손님에 한함」이라는 팻말에다 아예 낮에도 문을걸어 잠근채 「한인고객 이외는 사절」이라는 영업방침이다. 시큐리티도어 시설을 갖춘 일부업소는 자동소총에 방탄 유리창까지 설치하고 범죄방지에 안간힘을 쓰고있다.

입학시험제 실현시
토론토대학 84년부터

토론토대학은 보다 공정한 학력평가를 위해 84년도부터 입학시험제도를 도입 80년대 말에는 미국에서 작성된 시험이 아닌 캐네디언 시험제도실시를 검토중이다.

아더·크루거 토론토대학교 문리대학장은 2일 "대부분의 교수들이 외국에서 출제된 시험문제보다 캐나다 고교교과 과정에 맞는 시험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토대학교 운영위원회는 수개월 안에 문리학부의 입학시험 요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크루거씨는 캐네디안 시험제도를 개발하기 위해적어도 1백만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우회 제5회총회
회장출마마감 13일

토론토동우회(회장 원영신)는 오는 20일 하오7시 한인회관(20 Mobile Dr. Tor.)에서 제5차 정기총회를 연다.

이날 다루어질 안건은회장선거를 비롯 사업, 감사, 결산보고등이다.

회장 출마자의 등록마감은 13일 하오5시이다. 문의처 : 431-5958(이영만), 266-6358(김용기), 439-3312(송재서)

성대동창 총회
18일, 클링톤하우스서

토론토의 성균관대학교 동창회(회장 김영대)는 오는 13일(토)하오6시 클링톤·하우스(693 Bloor St. W.)2층에서 정기총회를 연다. 회비 $20

연락처 884-2084(김일창), 534-1085(김춘탁), 535-7772(이인덕)

교민동정

◆김보경(심리학박사)=오는 14일 하오2시15분 벧엘교회(395 Old Yonge St. Tor.)에서「이민생활과 가족관계」강연을 한다.(연락 : 496-2967)

◆김태진(실협이사장)=오는12일(하오7시)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새해 제2차 이사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부이사장, 임원 임명, 분과위원회 조직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

◆임송학(임송학태권도 장경영)=태권도장(1963 Weston Rd. Tor.) 두돌을 맞아 지원자들에게 회비할인등 특별봉사를 하고 있다.

김형석교수 연속강연
임마누엘, 새한교회서

한국의 저명한 철학가김형석교수(연세대)는 토론토의 두 교회에서 종교, 인생, 이민문제등을 다룬 연속강연중이다.

지난5-7일 새한성결교회에서 특별성회, 새벽의명상, 주일예배등에서 특별강연한데 이어, 8일은 임마누엘교회 헌신예배에서 특별강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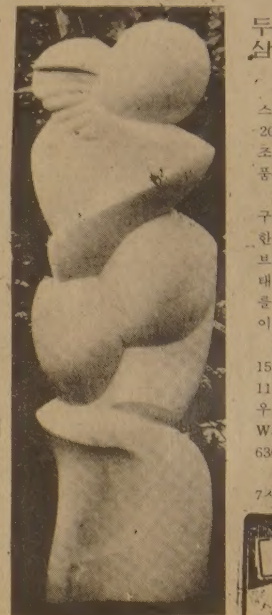
두그·로빈슨작품전
삼우 스튜디오서

조각가 장연탁씨의 삼우 스튜디오는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캐네디언 조각가 두그·로빈슨씨의작품을 전시한다.

올해 30세의 로빈슨씨는 구엘프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뒤 온타리오 컬리지·오브·아트(OCA)를 거쳐 이태리에서 2년간 조각공부를 했으며 개인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품작수는 구상, 추상등 15점이며 전시시간은 오전11시부터 오후10시까지삼우 스튜디오의 위치는 58 Wade Ave. 전화는 537-7630

개전 리셉션은 12일오후7시.



◇로빈슨씨의 조각품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경제생활과 우리 ⑧

투자상담편 담당 황상유(메릴린치 증권회사 근무)

"금·은"은 왜 폭등·폭락하는가?

전 호에서는 생산원가경제변화등 근본적인 요소들이 금값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이에 못지않게 전문가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거래량, 가격변동등을 도표로 그려가며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술적분석이다.

투자가들의 심리와 결정성향을 분석하면 일정한패턴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패턴을 컴퓨터로 분석하여 사고 파는 시기를 결정한다.

금은이 폭락하는 가장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이들이 선물시장에서 Margin(실제가격의 10%정도의 계약금만 주고 사는 제도)으로 거래되기 때문이며, 이 Margin제도 때문에 기술적분석이 중요성을 갖고 또 들어 맞는다.

금이 US$850에서 US$650까지 하락할때 7일정도 걸렸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생산원가, 경제여건들이 금값을 $200씩 하락시킬 정도로 바뀔 수는 없다. 이는 바로 기술적 이유 때문인데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자. 금이 온즈당 $600이면 한 Contract인 100온즈는 $60,000 인데 $5,000만 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산금이 만약 $580으로 하락하면 손해본 액수인 $2,000($20×100온즈)를 3일내에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런 경우 손해본 액수를 더 지불하고 Contract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파는 사람이 많아 값은 더 떨어져 $550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마진증서를 갖고 있던 사람은 $3,000을 지불하거나 되팔아야 한다. 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는 파는사람쪽이 많으므로 값은 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나타난다.

이때 이같은 값의 하락이 상승을 위한 일시적 조작된 하락인가, 아니면 대세가 완전히 뒤바뀐 진짜 하락세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급격한 하락은값이 많이 올라간 것들일 수록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고 또 많이 떨어진다. 그렇기때문에 금이나, 증권 무엇이건 과거 수년간의 평균값보다 월등히 높은 값을 주고 산 경우는 큰 손해를 볼 위험이 항상 있어 값의 변동을 매일 주시하다 하락세인듯 하면 얼마에 샀건 무조건 팔아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브로커와

마진이 가격의 승수효과
$200하락에 단7일

투자가 양쪽에 있을 수 있다. 어떤 브로커는 고객이 돈을 잃게 되면 미안해서 연락을 않고 그냥 둘 수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손실은커진다.

투자가가 명심해야 할것은 욕심을 너무 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은을 $20에 산 사람이 $55까지 올라 갔다 $40로 내려오면 이때 팔아도 2배의 이익을 볼 수 있으나 $55할 때의 벌 수 있었던 가공의 이익(Paper Profit)에 현혹되면 $40에 팔기가 힘들다.

결과는 처음에 산 가격 $20보다도 더 떨어져 $7.70(1월18일 현재)이 되는 때가 온다.

주식의 경우는 전액을지불하거나 Margin도 50%이상을 지불하고 구입해야함으로 손해본 액수를 추가로 지불할 수 없어 파는 사람들 때문에 값이 하락하는 현상은 덜하고 또 느리나 원리는 같다.

1929년 경제공황당시 주식값이 폭락한 몇 이유중의 하나는 그 당시는 주식의 경우도 지금 금의 경우와 같이 10%의 마진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이후 주식시장을 보호하고 주식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마진을 10%에서 50%로 올린 것이다.

금에 대한 투자가 주식보다 훨씬 투기적이라 할 수 있는것은 이처럼 금이 주식보다 훨씬 적은 마진으로 거래되어 값의 기복이 짧은 기간에 너무 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을 사면 떨어지지 않으면 올라가기 마련이다.

브로커가 추천했거나 투자가가 산 증권이 올랐다 하여 그것이 대단한 것은 될 수 없다. 효율적 투자는 이처럼 증권시장의·특수성을 인식하고 활용, 값이 상승할 때는 이윤을 극대화하고 하락할 때는 예리한 판단과 특수한 전략을 사용하여 손실을 극소화하고 좋은 시기가 왔을 때 이를 다시 포착,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계 속)

한국의 중요기업들
학력보다 인품중시

(서울 4일=연합)서울의 유력한 민간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사원채용시 고용주는 입사자격으로 교육배경보다 원만한 인격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국 100개의 유수회사 최고경영인을 대상으로 대한 경영협회는 조사결과조사대상자의 74%가 유능한 사원의 부족을 원만한 사업경영의 가장 중요한 장애로 꼽았다고 말했다. 자금부족이 주요문제라고 말한 응답자는 23%에 불과하다.

총 응답자중 74%가 전망있는 사원의 평가에 있어 「원만한 인격을」최고로 꼽은 반면, 17%는 교육배경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3%는 출신지방을중요요소로 들었다.

<매일연재 캐나다소설>——(128)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팔리·모왓 원작·원재훈 옮김

"당신들 하나님의법은 당신의 일거일동을 감시하며 오직 무서운 죽음으로서만 당신을 심판한다지요.

이런것들이 나를 공포로 떨게 만들었다오. 그러나이런것들로 두려워지기는 해도 당신들 역시 우리를 지어낸 그여자(이할미우트의 창조신)의 아들들이며 이누이트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늘속에서 살아야되는 당신들에게 동정이 가는구려.

나는 당신들이 부르는지옥이라는 곳에서 안전한곳으로 피할려는 당신들의노력에 행운을 빌 뿐이요!"

그 무역자는 그의대화를 자세하게 기억하고있었다. 그는 이 미개한 이교도한테서 특히 동정을 받게된 것을 즐거워 했을리 만무하다.

이 미개한 에스키모나이단적 사냥꾼의 이야기를들어볼 여유가 없다고 생각되는 독자라면 인디안들과 52년을 함께 살면서 위대한 믿음을 선파했던 선교사의 말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이사람을 아주 가까이 알게되었으며 그를존경하고 그에게 큰 매력을 느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곧고 정직한 사람이었으며 나는 또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인 사람을 지금껏 보지 못했다.

내가 그를 알게되었을때 그의 생애는 거의 마지막에 달해 있었고 내가 그의 작은 거처를 떠나온지 두어달후에 그는 죽어버렸다. 그는 사랑과 믿음으로 열심히 일했고 매우 엄격하게 그의 과업을 이룩하려고 분골쇄신 하였다.

이제 그의 과업은 이룩되었다. 그의 주변에 살고 있던 모든 인디언들은 정기적으로 그의 교회에 나왔고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노인은 그 땅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50여년동안 거의 3천여명의 이족속들이 2백여명의 패기없는 사람들로 줄어 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들 살아남은 사람들은 게으르고움직일줄 모르며 전혀 위생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더러운 곳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정신적, 신체적 불구자들이었다.

나는 그해 크리스마스전 바로 한밤중에 그의 작은 통나무집에 앉아 있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거의끝이 나고 있었는데 늙은이는 눈길을 어두운 창밖으로 보냈다. 열심히 일했던 그 긴 고통의 세월동안 햇볕에 그을고 서리에 고문당했던 그의 두볼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침묵이 계속되자 나는불안해졌다. 그날 저녁 일찍 내가 그의 집을 찾아왔을 때는 내가 이미 그날낮 이 사람들한테서 다시 듣고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후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나는 이 노인에게 퉁명스럽고 잔인하게 말을 건넸으나 그는 나를 나무라지 않았다.

그는 내가 몹시 비방하는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더니 내말이 끝나자 산만하게 뚜렷한 목적없이 그 땅에서 보냈던 그의 생애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그는 그의 긴 생애를 늙은이의 가쁜 숨결로 가끔씩 끊어지는 말로 이야기하다 마침내는 말을 멈추고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일생동안에해온 업적을 맹렬히 무모하게 비난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곳을 빨리 떠나고 싶었지만 내가 떠나올 수 있기전에 그의 목소리는 은밀하게 방안에 다시 채워졌다. 그것은 부드러웠지만 내가 들어본 중에서 가장 늙은 목소리였다.

"이제 좀 기분이 좋아졌나?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내가 이 땅에 오지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뻔·했단 말이지—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내가 오지 않았던들 내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이 더 좋았었을 거란 말이지? 자네는 그렇게생각할거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역시 이 지역으로 보내졌을때 이 사람들에게해로운 일이라고 가끔 생각해 보곤 했지…"

그때쯤 나는 그의 일생의 노고를 치하하고 나와 버렸다. 이제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으로서 그 자신에게나 나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거짓말을 했기를 또 내가 그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교사했기를 간절히 바랐다.

(계속)

THE KOREA TIMES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오타와 지국장입니다
이 태 은 : ☎ 722-6133
기사·광고·구독등 신문사 관계사항 일체에 관해 도움드립니다.
THESE TIMES NEEDS
THE KOREA TIMES

개 업 인 사
김명숙회계사무소
(KIM'S ASSOCIATES)
안녕하십니까. 닥아오는 TAX 시즌에 대비해서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코자 2월1일부터 아래와같이 사무실을 마련 했읍니다. Tax Return, Bookkeeping, Accounting등 제반회계 업무와 세무및 경영상담등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왕림하시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력 : 1974년 이화여대 경영학과 졸업
Algoma 대학교 회계학 전공
5년간의 C·A.Firm근무
현재 C.G.A. Undergraduate(5th Level)
장소 : 484 Bloor St.W.(강찬영변호사 사무실 내)
전화 : (B) 537-3171, (R)669-2710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소 론〉

민주풍토 조성을 경하하면서

박 찬 도 (전 토론토한인회 부이사장)

◇박찬도씨

토론토〈한국일보〉1월11 일자사설「민주풍토조성」을 읽고 동감하면서 나의 의견을 첨가해 보고자한다.

민주주의는 넘치지 않고 처지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넘치지않아조용하고, 처지지않아 상대가 넘칠수없어 조용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처져서만조용하다면 처진다. 처져서조용하나, 상대는 시끄러울요소를 가진채 조용한 것이다.

상대가 넘쳐서 시끄럽게 되어야 할터인데 이쪽에서 처져있으니 일단은 조용하다. 그러나 그 넘침을 처진자에게 불만을 넣어주어언젠가는 그 반발로 크게 시끄러워 지는 것이다. 그러나 시끄러울 조용함인지정말 처지지 않고 넘치지 않아 조용한 것인지 잘 살펴 보아야 한다.

요즘의 조용함이 마음의 불남용과 불위축으로만 조용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물론 그런 기본적인 마음자세, 불남용(자제)과 불위축(타제)의 역량도 어느만큼 증대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조용함을 만들 만큼의 역량에는 미달로 본다. 본질상태(마음상태)의 미달 속에서 몇가지 상황요인에 따라 조용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다.

첫째 이유는 이곳 자유사회에서 별로 격하지 않는 자유인들의 태도를 은연중 배우게된 것.

둘째로 떠들었자 욕이나 먹지 별 득되는 것 없을것이라는 생각.

세째로 이제껏 너무 시끄러웠던 것에 염증을 일으켰던 것등, 상황변화가 그와같이 조용하게끔 만들어준 요인의 더 큼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입을 다물었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것이 불남용이고 불위축의 마음이 줄어진 것일까? 나 보기에는 남용을 억지로 끌어들인 위축상태로 본다.

그렇다면 언제이든 맹점의 출구가 심각하게 나타나면 여전히 크게 시끄러워질 요소는 상당히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행히 생활적으로 조용함이 온 것을 감사히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하고, 전통이 되는 것도 대단한 가치의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조용함의 보장을 위해 우리는 마음으로 위축 안되고, 남용 않은 건전한 견제의 사회기풍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못마땅한 일을 봄에「반드시 항의하되 과하지 않도록」자제하는 불남용의 마음자세이다.

그것을 스스로 자유가짐으로서 갖는(자유를 주고 받는—양보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인식으로 더욱더 발전해 가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안개속의 산책—지난3주동안 계속해 내린눈으로 워싱턴 천지는 온통 하얗기만한데 오랜만에 따뜻해진 날씨에 짙은 안개마저 끼어 글로버·아치볼드공원은 별천지 같은 느낌이다. 〈워싱턴— 〉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⑦

첫 부임(고삿갓)

고마태오(종욱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그래서 한국정부도 이민정책을 세워 국민들에게 이민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미지역에 많은 한국인이 이민 가고 있읍니다."

"그렇소? 좋도록 하시오. 모든 것을 고래고왈 보좌주교에게 지시해 놓을 거요. 학년말시험이 끝나는대로 교구 전입문제에 따르는 제반절차를 취하도록 하시오."

"감사합니다. 추기경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저에게 강복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강복을 받았다.

그해 부활절을 지내고 학년말시험을 끝낸 어느날, 나는 홍도 관구장 신부로부터 도밍고수도회를 떠나모래알교구로 전입해도 좋다는 편지와 동시에 그레고왈 주교로부터 교구전입을 허가한다는 편지를 받았다. 나는 이 사실을 내 지도신부에게 알리고, 수도원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준비래야 옷가지 한벌과 책 몇권의 손가방 하나 뿐이었다. 나는 프랑스 낭시신학대학을 떠날 때 기념이 될만한 모든 물건과 책들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캐나다로 왔던 것이다. 옷도 입고 있던 옷 한벌만으로 수도원에 들어왔었다. 수도회 생활은 철저한 무소유의 생활이며, "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물건을 소유할 수 없기에 나는 모든 것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거나, 아니면 버리고 홀가분한 몸으로 수도원에 찾아왔던 것이다. 이제 나는 2년전 입고 왔던 옷을 다시 입고, 갖고 왔던 책 몇권을 손가방에 챙겨 갖고 세속으로 떠나는 몸이었다.

그동안 입고 있던 수도복과 정들었던 방안 물품들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갑자기 허전해지는 것을 막을 길 없었다. 뭔가 정들고 사랑했던 것을 떠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섭섭하다 못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물며 일생을 바쳐 사랑하고자 했던 수도회를 떠난다는 것은 나에게 크나큰 마음의 아픔이 되었다. 나는 도밍고수도회를 사랑했었고, 또 수련기간과 수학과정에서 나는 행복했었다. 내가 도밍고수도회를 떠난다는 것은 수도생활이 싫어서가 절대로 아니었다. 수도회에 남아 있으면 내가 그처럼 싫어하는 일본인을 위해 일해야만 되겠기에 나는 내 동족을 찾아나선 것 뿐이다. 물론 그러한 결정과태도가 아직 수도자로서의 수련이 미숙한 탓이라 하겠으나 나는 일본인을 위해 사제가 된 것은 절대로 아니다. 동족을 위해 할 일 많은 상황에서 내 어찌 이 국민을 위해 이 한몸을 바치랴.

하여튼 나는 방안 정리를 끝내고, 내 방 벽에 걸려있던 십자고상을 품에 안으며 주님을 영부라스했다. 그때 코끝이 시큰하더니 눈시울이 따끈해지는 것을느꼈다. 괜히 울고 싶었다. 그리고 수도회를 떠나는것이 어쩌면 내가 잘못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다. (사실 나는 도밍고수도회를떠난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

떠나는 전날밤 동료학생 신부들이 나를 위해 간단한 송별잔치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가 어디에서 뭣을 하든 그것은 주님의 같은 목장이며, 또 주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며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것은 사실이다. 수도회에 남아 있든, 수도회를 떠나 교구로 돌아가든 우리는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사제로서 주님의 사업을 할 따름이다. 그러나 한 수도회 안에서 같은 이상을 갖고 함께 구도의 길을 걸어가던 동료들이었기에 서로 헤어짐이 마음 아팠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나는 9시기차편으로 옷따와를 떠나야했다. 전날밤 원장신부와 여러 교수신부들과 지도신부에게 작별인사를 했었기에 아침미사를 지낸 다음 누구에게도 인사함 없이 수도원을 떠났다. 레몽 수사가 나를 역에까지 자동차로 데려다 줬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때 나는 기차표를 살만한 돈을 갖고 있지 않았다. 나에게 돈이 있을리 만무다. 철저한 무소유의 수도원에서 학생신분으로 공부만 해온 나에게 돈이 있을리 없다. 레몽 수사에게도 돈이 있을리 없다. 내 사정을 알아차린 레몽 수사가 어디론지 자동차를 급히 몰고 갔다 오더니 나에게 5달러를 주며 말했다.

"태오 신부님, 이 돈 받으십시오. 제가 잘 알고있는 상점에 가서 빌려온 돈입니다."

"레몽 수사님, 현재 내 사정이 사정이니만큼 이돈 염체없이 받겠읍니다."

"원장신부님께서 큰 실수를 하셨읍니다. 그럴 수는 없읍니다. 수도회를 떠나 세속으로 돌아가는 분에게 여비를 안 마련해 줄 수는 없읍니다. 우리 수도원에서는 떠나는 분들에게 여비는 물론 얼마간의 생활비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태오신부님께 여비를 안주셨다니‥ 틀림없이 원장신부님께서 잊으셨을 것입니다."

레몽수사는 그것이 마치 자기 탓인양 미안해 하며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셨을 것입니다. 염려 마십쇼, 레몽 수사님. 나에게는 이 기차표값만있으면 됩니다."

"급한마음에 5달러만 빌려왔는데, 돈이 많이 부족하겠읍니다, 신부님."

"모래알에만 가면 됩니다. 거기서 나는보좌신부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비는 마련될 수 있을테니까요."

"태오신부님, 돈 한푼없는 신부님을 떠나보내는게 마음이 아픕니다."

"염려 마십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 것이며, 식량자루나 여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치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나에게는 5 달러가 있지 않읍니까. 사목전선에 나서는 나로서 주님의 섭리에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주님의 분부로받아들이고 임지에 임하렵니다."

"그럼, 저에게 강복을 주시고 편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중에 서로 잊지 않기로 합시다."

그리고 그는 내 발밑에 무릎을 꿇고 강복을 청했다. 나는 그에게 강복을 준 다음 기차표를 사러 역내로 들어갔다.

이렇게해서 나는 1965년 4월중순옷따와를 떠나 나의 첫부임지 모래알로 향했던 것이다. 4월 중순이라하지만 캐나다의 날씨는 쌀쌀했다. 2년전 수도회에 입회할때 입고 왔던 여름옷에 스프링·코트를 걸친 내 모습은 여느때없이 초라해 보였다. 객지에서 내 주머니속에 돈 한푼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것 같았다.

여기저기 그늘진 골짜기에 아직도 채 녹지않아남아있는 설경이 내 가난한 마음을 더욱 가난하게 느끼게 했다. 마음도 추워오는것 같았다. 공연히 슬픈 생각까지 들게했다. 고향생각과 프랑스 유학시절의여러가지 추억이 다감하게회상되었다.

"그때 결혼했었더라면…" 하는 부질없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가 좋아서 스스로 택한 내 인생이었던만 신부라는 이현실이 다소 후회스럽기도 했다.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임송학 태권도 도장 2주년
RIM'S TAEKWON—DO SCHOOL
태권도

(79년 C.N.E. 시범경기광경)

개업 2주년 특별봉사
● 자신감 배양
● 호신술 연마
● 튼튼한 체력연마및 인격도야
● 한국인의 긍지 함양
※교포자녀들에 한해 특별할인회비

1963 WESTON RD.
(Weston & Lawrence) Loblaws 앞.
전화 : 247—7577 임 송 학

Instructor: RIM, SONG HACK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鐵道·지하철·古宮·공공시설料金
13歲미만無料 法制化
「半額」등 例外규정 함께마련
전면實施엔 論難 뒤따를듯
아동福祉法改正시행령 의결

전국의 13세미만 어린이들에게 철도, 지하철, 고궁, 공설운동장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모든공공시설이 무료개방된다. 다만 무료개방이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과 상충될 경우에는 특별규정에 따르도록 했으며 해당시설자체의 재정면에서 부득이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기관이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성인요금의 반액이내에서 할인요금을 징수할수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보사부는 이같은내용을 골자로한 아동복지법 개정시행령을마련, 2일하오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와함께 2월중에 실시키로했다. 13세미만의 아동에대한 공공시설이용료 감면규정은 처음있는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예외규정에 따라 많은공공시설의 관리기관이 현재의재정면등을 이유로 무료보다는 반액할인쪽을 원할경우 실제로 13세미만아동에대한 전면적인 공공시설의 무료개방에는 상당한 시일과 논란이 따를것으로보인다. 다만 이시행령의 확정으로 지금까지 법적근거없이 행정지도만으로 사업기관마다 할인대상연령 기준이나 할인율이 각기 달랐던아동들의 공공시설요금 할인제도가 적용대상, 할인범위등이 통일돼 처음으로 법제화된데 의의가 있다.

현재 13세미만아동들의 공공시설이용요금은 각양각색으로 창경원의경우 6세이하만 무료이며 국민교생은 성인요금 (4백50원)의 30%만을 할인해 (3백원) 주고 있고 이밖에 철도요금은 5세까지만 무료이며 12세미만은 반액을받고있다. 또 공설야구장의경우 뚜렷한 규정이 없어 경기주최측마음대로 할인여부와 할인율을결정 짓도록 돼있는등 시설마다 다르다.

이날 확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은 이밖에 3~4세유아의 정상교육을 위해 현행 5세미만으로된 영아시설 입소대상을 3세미만으로 (3세이상은 육아시설 대상으로) 낮추고 ▲각시·도에 설치하는 아동상담소에 아동복지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과함께 정신과 또는 소아과의사, 간호원, 보육교사등을 반드시 두도록 직원 규정을 신설했으며 ▲현재 18세가되면 퇴소해야하는 육아원 보호기간규정을 고쳐 재학중 또는 직업훈련등 특별한 경우에는 20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앞으로 심신장애자의 진료를담당할 의료기관을따로지정(국공립 병원은 당연지정)하고 이에따른 진료지침, 진료비산정 기준등과 중증(重症) 심신장애자 부양가족에 대한부양수당 지급기준등을 규정한 심신장애자 복지법 시행령과 노인복지법 시행령도 함께심의, 통과시켰다.

◇高建농수산장관이 2일하오 최근의 쌀값下落등 農政을 집중추궁한 국회農水産委에서 의원들의 신랄한 질의 攻勢에 침통한 표정을짓고있다.

政府米 適期引上 조정
일반미값 上昇을 유도
高農水産

국회는 2일하오 農水産委를 열고 최근의 쌀값下落문제등에 대해 高建농수산장관으로부터 정부의 對策을 보고받고 밤늦게까지 정책질의를 벌였다. 高장관은 이날 「米價支持대책」에 관한 보고를통해 『지난달 20일 米價부양을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이후 최근米價는 전국적으로 가마당 1천원 내지 3천원씩 상승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쌀 出荷量은 감소하고 一般米수요의 증가등으로 각급학교등록금 납부기인 2월말경에는 米價가 안정될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앞으로 米價下落의 주요원인인 농촌자금사정의 완화에 주력, 營農자금을 계획대로 早期방출하고 미회수 營農자금의 償還猶豫와 學資金 융자규모도 증대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할생각』이라며 『정부米價의 適期인상 조정을 통해 一般米價상승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高장관은 그러나 2월말까지 學資金수요가 증대하여, 쌀 出荷量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아울러 米價支持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물가안정화시책과 부분적으로 상충되는제약요인을안고 있다』고 밝히고 『米價부양을위한 기본 종합대책은 日日米價대책회의를 운영하는등 제반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81년도 도입外米 1천5백60만섬중 12월말현재 9백40만섬이 放出되고 6백20만섬을 保庫중으로 外米재고 외 수확방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高장관은 또 지난해 버마、이탈리아에서도입한쌀 가운데 品質이 크게떨어져 소비자가 외면하고 5월이후까지의 보관이 어려운 규격미달도입미 26만섬 (3만7천톤)을 酒精원료인 태피오카、糖密등의 수입대체용으로 쓰기로했다고 밝혔다.

그는 80년의 흉작으로 도입한 外米 1천5백20만섬중에서 버마에서 도입한 6만5천톤 全量과 이탈리아 도입미 4만톤중 3만톤등 9만5천톤 70만섬이 低質米였다고 밝히고 그동안 이를 보롬미로 방출, 44만섬을 소비하고 지난해 12월말 현재 26만섬 (3만7천톤)이 남았으나 이쌀을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고 5월이전에 소비하지 않으면 변질우려가 커 糖密·태피오카등 수입酒精원료代替用으로 충당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肥料赤字의 해소를위해 근본적으로 비료공장의 경영합리화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경제성이 낮은비료회사는 정부의 비료인수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성이 좋은 회사만 비료인수 대상으로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高장관은 따라서 종합화학과 鎭海화학은 정부의비료인수대상에서 제외하고 南海화학、嶺南화학、韓國비료만 비료인수대상으로 책정、경영을 합리화할 방침이라고말했다.

이날 曺洪相(民正) 吳上鉉·劉溶根(국민) 趙一濟의원(이상民韓)등은 쌀값暴落은 秋穀收買의量과 가격의 過少책정、外米의 過多도입등 農政의잘못이라고 주장하고 農政책임자는 이에대한責任을 져야한다고 引責攻勢를 폈다.

★國會錄音2면

50坪미만宅地 讓渡稅면제 검토
建設部 業務보고
住公임대住宅 月2萬8千원
漢江邊에 고수부지 百萬坪造成·여의도派川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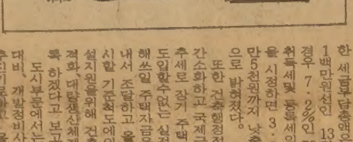
全斗煥 대통령은 2일 상오 청와대서 건설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金宗鎬건설부장관과 8명의 국장들은 이날 보고에서 南漢江 舟運계획과 서울올림픽에대비, 우선 워커힐부터 蘭芝島에 이르는 30㎞구간의 漢江정비계획을 시행키로 하고 오는 83년하반기에 착공, 87년에 완공할것이라고 보고 있다.

漢江정비계획기본구상은 ▲워커힐-蘭芝島까지의 한강에 깊이 2.6~3m 폭 7백m내외의 저수로를 개발하여 ▲양쪽 강변에 폭1백m내외의 고수부지 12개소 1백만평을 조성, 하천공원과 운동장으로 활용하며 ▲城山대교-蠶室-워커힐까지 26㎞구간에는 남쪽강변에 4차선의 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1천2백억원선으로 추산되나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충당키로하고 여의도 뒤편의 派川을 매립하여 30만평의땅을 새로조성 ▲20만평은녹지공원으로쓰고 ▲10만평은 택지로 매각하는한편 구역내의 골재도 팔아 사업비를 조달하도록 했다. 강변의 고속화도로는 현재의 강변도로와 연결, 사실상 확장하는것인데 올림픽에 대비한것이므로 오는86년의 아시안게임 이전인 85년까지 완공토록하고 南漢江舟運개발계획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타당성조사를 착수할것이라고 보고했다.

주택부문에서는 ▲주택구입능력이없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올해 주택공사에서 짓기로한 3천호의 13평형 임대주택을 입주보증금 1백64만원, 월임대료 2만8천원 수준으로하되 임대기간은 5년정도로하고 ▲민간주택산업의 육성을위해 年利5%이하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지원하는방안, 취득세·등록세·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등을 면제해주는 방안,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염가로 공급해주는방안등을 다각도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50평규모이하의 소규모택지를 실수요자들이 거래할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줌으로써 소형주택의 자력건설을 활성화시키고 ▲민간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二重과세를 시정하여 주택가격을 낮추도록하겠다고 보고했다.



건설부가 예시한 집값에대한 세금부담총액은 싯가 1천1백만원선인 13평형주택의 경우 7.2%인 79만원인데 취득세및 등록세의 二重부담을 시정하면 3.2%인 35만5천원까지 낮출수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건축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국제금리의 상승추세로 장기 주택차관자금을 도입할수없는 실정이므로 국민주택자금을 전액 국내에서 조달하고 올해부터 기준설계도에의한 주택전시를 실시하며 설계도를 위해 건축자재의 규격화, 대량생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도시부문에서는 올림픽에 대비, 개발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키로하고 올해부터 ▲지구계획제도를 도입, 구획정리 지구를 포함한 신도시개발구역과 대도시 일부재개발구역부터 시행해나가고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산하에 설립키로 한 도시재개발공사, 민간건설업체등 제3자라도 재개발사업을 할수있게 허용키로했으며 연쇄개발방식(롤링시스템)을 도입하여 재개발사업을 촉진하는한편 주민들의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도입할 지구계획제도는 도시계획이 법적으로 정하고있는데 반해 도로·공원·학교등 시설의 적정배치, 건물의 높이와 모양, 규모까지 상세히 지정해놓는것으로 구역내의 토지소유자라도 모두 이에맞게 건물을 짓도록하는 것이다. 연쇄개발방식이란 재개발구역내의 한쪽에 먼저 아파트등을 지어 구역내 주민을 이주시키고 다음구역내주민을 이주시키고 다음구역의 재개발사업을 할때도 같은방식을 적용, 단계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확대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건설부는 올해부터 도시재개발사업을 위해 복합건물건축은 물론 금융지원및 조세감면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토지부문에서는 기준지가의 현실화를 위해 올해 昌原 龍潭등 10개지역, 내년에 濟州 巨濟등 15개지역의 기준지가를 재평가, 싯가에 알맞는 수준으로 조정, 고시할 것이며 토지평가제도를 일원화하기위해 국토이용관리법이의 토지가격평가기구를 모두 삭제하고 토지평가사및공인감정사도 「감정평가사」로 통합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不動産경기 浮揚策 實需者중심 신중히"
全대통령、建設部보고받고

全斗煥 대통령은 2일 不動産경기부양은 實需要者 중심의 범위안에서 신중히 추진토록하고 앞으로 無許可건축이 방치되는 경우에는 이를 단속하지못한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추궁토록 하라고 건설부에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金宗鎬건설부장관과 8명의 관계국장으로부터 새해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 이같이 지시하고 『건축資材를 국제規格化하는데 노력하는한편 모든공사의 설계와 監理등에있어 국제경쟁력을갖춘 고급人力을 양성하는데 힘쓰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 漢江에 低水路를 설치하고 漢江邊양쪽에 고수부지를 만드는 한편 城山대교에서부터 한강변 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의 南漢江舟運계획을 보고받고 蘭芝島-워커힐까지의 漢江 정비계획은 가급적 빨리실시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각부처가 추진하는 모든 개발관계 공사는 건설부가 주관이되어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맞추어 실시토록 하라』고 말했다.

3시간20분동안 계속된 이날 건설부업무계획보고 자리에는 劉彰順국무총리 金埈成부총리 孫守益총리 行調실장이 배석했다.

「民主統一」방안 실현協力
韓·도미니카外相 2개協定체결

韓·도미니카 양국은 2일 外相회담을 열고 두나라간의 과학·기술및 통상분야의 증대를위해 더욱 합심키로합의했다.

盧信永외무장관은 2일하오 마누엘·엔리케·타바레스·에스파이야트外相과만나 양국공동관심사를 협의하고 특히 全斗煥대통령이 제의한 민족통합방안의 배경과 취지를 거듭설명, 타바레스外相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이의 실현을 위한 도미니카정부의 적극적인협력을 다짐받았다.

양국外相은 회담을 마친후 두나라간의 과학기술협력과 査證(비자)면제에 관한 각서교환등 2개협정을 체결했다. 도미니카와의 비자면제협정으로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체결한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어났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社会漫評

이런 날이…

地平線

일본 형사 소송법 제336조를 옮겨본다. 『피고사건이 罪가 아니될 때, 또는 범죄의 증명이없는때는 판결로써 무죄를 言渡해야한다』 여기에서 「罪가…」이하를 「犯罪로되지 아니하거나」로, 「言渡」를 「宣告」로 고치면 우리 형사소송법 제325조가된다. 直譯이 아니라면, 飜譯된 조문이다. ▼지난 1일 선고받은 高淑鍾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근거가 바로 이 조문이다. 법정의 실황을 안방에 전해준 텔리비전 카메라도 『형사 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라고 선고하는 재판장을 정면으로 잡고 있다. 순간 울음을 터뜨리는 高피고인의 클로스업… 高피고인이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듯 퇴정한다. 왜 석방되지 않을까。의아함을 느낀 시청자가 적잖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다시한번 일본의 형사소송법 제345조를 直譯하면 다음과 같다. 『무죄…의 裁判의 告知가 있은 때에는, 勾留狀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중 「裁判의 告知가 있은때」를 「판결이 선고된 때」로, 「勾留狀」을 「拘束令狀」으로 고치면 우리 법의 제331조가 된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꼬리가 달려있다. 『但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로한다』 ▼텔리비전 시청자를 의아케 했던 법적 근거가 이것이다. 그러나 법이 그렇다는 것만으로 의아함이 풀릴수는 없다. 귀따갑게 들어 온대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刑訴法 第275條의 2)。 지난번 개헌에서 明文化한 대원칙이다. 高피고인 같은 경우는 무죄의 추정을 지나, 1심법원이 무죄의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항소한다고 해도 그 추정과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 죄가없다면 구속을 푸는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것이 常識이다. ▼무죄의 판결은 곧 구속의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나같다. 그것은 검사의 유죄의견을 물리친 것인데, 새삼 검사의 의견을 기준삼아 피고인을 계속 구속함은 이상한일이다. 중범의 증거인멸·도주방지가 但書규정의 이유일 수가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의 책임이지, 그 책임을 덜자고, 피고인의 人權을 소홀히 할수는 없다. ▼물론 保安事犯등 정부독이한 경우는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절차를 규정하면 그만이다. 도대체 일본法을, 그것도 옛것을 너무 닮은 刑法典이라, 여당에서도 개정을 추진중이라지만 (1일字 본보11면), 그 작업이 이런데까지 미치기를 바란다.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illegible]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B)
791-8196(R)

캐나다
외환은행
☎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KING X YORK)

뉴패션 다량 입하!!
50% OFF
기간 : 2월11일(목)~20일(토)
시간 : 오전10시~오후9시
LONDON FOG® 품목 : 82년형 바바리코트. 스포츠용 잠바. 일반잠바등
남녀물쎄무 : 투피스, 코트, 신사복
가죽 제품 : 쎄무코트, 쎄무잠바, 양털코트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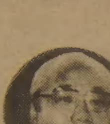
"大入試등 敎育제도 전면改編은 안해"

劉총리 당면政策밝혀

住宅중심 景氣부양 전망 "安定內서 經濟후속 조치"

韓日經協낙관·自律化는 점진적으로

否定심리 追放위해 宗敎단체와對話


◇劉彰順총리

劉총리는 이날 하오7시 KBS·TV「安定과 跳躍의해」프로에 출연, 올해의 정부시책방향을 밝히는가운데 이같이말하고『최근 매스컴을비롯 일부에서는 교육제도에너무「과거로돌아가라」는 의견도있는줄알지만 과거제도에 폐단이있어 고친것이…

쌀값暴落등 따지기로

民韓 農資 8千億상환연기등 長短期대책

"秋穀價 低率인상 농민들 苦痛받아"

"內務委 소집요구" 民韓 人權침해 추궁

國會錄音 — 農水產委 질문·답변

◇2일 국회農水產委에서 與野의원들이 쌀값下落을 추궁하기앞서 高建농수산장관(뒷머리부분)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고있다.

農資早期방출 共販언제든지 可能 답변

"低米價 15년새 主穀自給 40%下落 農政책임 누가… 收買價·量 豫示를" 질의

社說

實情에 맞는 집과都市 —建設추진에 能動的對策 있기를

1일上午 全斗煥 대통령에게 보고된 올해의 건설부계획은 제2차 국토계획을 확정하는 동시에 이계획속에 담겨져있는 금년도시행부분을 집행할것과 市級地域(50개)도시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고 도시재개발사업을 새로운 합리적 방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분야에서는 小型賃貸주택에 주력하고 住宅건축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간접시책을 펴며 土地利用의 합리적관리를 비롯하여 유휴지·미개발지의 활용방안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또 토지평가제도를 革新하며 宅地공급을 더욱 원활히 할것도 포함되어있다.

이외에 도로건설과 기존도로의 확장및 포장을 추진하며 陜川多目的댐건설에 착수함과 아울러 忠州댐공사의 공정을 32%까지 추진하고 河川개수와 上水道확장에도 주력토록 짜여있다.

제2차 국토계획은 그자체를 확정하는일외에 立法化를 필요로하는 成長거점도시육성계획과 수도권 정비계획이 들어있는데 아직은 成案단계에 있는것 같다. 그 확정에는 전문가들의 衆智를모으고 관계당국과의 난상토의 과정에서 거창한 진통을 거쳐야할것같다. 이런일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財源의 마련이 갖추어진完整한 계획을 수립·확정하기 바란다.

50개도시지역의 도시계획재조정은 앞으로 20년간 확고한 生命力을 갖추어야한다는것이고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상과 현실을 잘조화시킨 내용으로 짜여지도록하여야한다. 여기서 이상이라함은 여러모로 不確實要素투성이의 20년앞을 내다보는 識見과 예지를말하며 현실이라함은 각가지로 利害관계가 상충되는 現住者들을 상대로 하느니만큼 公平·公正·合理性을 강조하라는 말이다.

서울의 도시재개발사업분야에서 전담기구를 창설하고 특히 연쇄개발방식을 도입하고자하는것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대개 재개발사업지역은 낡고 零細한 住宅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 곳이므로 먼저 이들이 이사갈 집을마련한 다음에 재개발에착수하는 것이 순서인것인데 이제까지는 이 당연한 순서가 무시되는 일이 非一非再하였다.

이에 덧붙여 제의하고자하는것은 지금까지 재개발지역에서는 여러群小주택들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사업용고층건물한채를 짓는 방식을 취해왔는데 경우와 곳에 따라서는 꼭 그렇게만 할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시 住居用건물을 지어 주택난해결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주택건설문제에서 올부터 임대주택을 많이 짓기로 한 것은 住居生活上의 一大轉換이라고 보고 이를 환영한다. 임대주택이 보급되는 날에는 「내집마련」이라는 개념은 그 내용이 크게 달라져야 할 것이며, 이에따라 住生活文化에 새로운 전통과 관습을 창조할 필요가 있겠다. 소유권은 없어도 恒久的인 入住權이 있는 것으로 별문제없이 住生活을 영위하는 것은 先進國일수록 더욱 보편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건설부당국은 임대주택제도의 확립과 그 세세한 내용을 더욱 다듬기 바라며 民間人들이 賃貸住宅業에 적극 참가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財務部·內務部·地方당국들은 적극협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한 건축업은 경기를 活性化하는 先導산업이므로 당국은 이점에 유의하여 국민경제발전을 志向하는 안목으로서도 주택건축이 왕성하도록 시책하기바란다.

宅地개발과 土地賣買를 원활하게하는 과제도 만만치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바로잡아야하고 새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自明한 事案들이 많은줄 안다. 이런 일에야말로 당국자들이 無事安逸을 배제하면서 능동적으로 움직여 사태를 개선할 필요가 매우 클것이다.

무엇보다도 몇해뒤에 人口 4천만을 바라보고 都市化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돼가는 처지에서는 人口 2천만명당시의 시책방식들이 근본적으로 수술대상이 되어야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점에서 건설부당국의 분발과 노력을 격려하며 촉구하고자 한다.

敬老요금·學生요금 —公正負擔이 交通改善의 始發이다

교통부와 민정당이 확정, 발표한「대중교통수단 종합개선 방안」(1일字 본보1면)은 여러가지 환영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65세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무료승차, 학생과 근로청소년의 정기승차권제, 택시의 LPG화와 고정월급제는 진작부터 시행이 아쉬웠던 점들이다.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노인들의 무료승차는, 노인문제의 주무부인 보사부가 50%할인을 추진했던 것에 비해서도 획기적이다. 올해가「세계노인의 해」임을 생각하면서, 옳게 결단한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 시책이「대중교통수단」전반을 말하면서 시내버스 이외의 경로우대에 언급이 없음은 미흡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하철을 제외한것은 너무 인색해 보인다.

노인들의 무료승차는, 거기서 오는 버스삯 몇백원보다, 경로의 기풍을널리편다는것, 그 것이 정부 정책임을 분명히 한다는데 더 큰 뜻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는 모든 대중교통수단, 나아가 여타 공공시설 이용에까지 확대함이 옳다. 업종과 서비스내용에 따라 전액면제가 어려우면, 경로할인만이라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할 때, 잊지말 것은, 노인들이 버스를 무료로 탄다고 해서「공짜손님」대접을 받는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운수사업종사자들만이 아니라 이용객 모두가 이 점을 생각해야 한다.

학생과 근로청소년의 정기승차권제는, 이와는 또 다른 면에서 획기적이다.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승차권제가 있어야 함은 벌써부터 지적되어 오던 터다. 그에서 오는 이득은 승차권관매비용의 절감, 정기승차시비를 포함한 승무원의 근무조건 개선, 재빠른 승하차, 이용자의 편익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장점을 살릴수만 있다면, 정기승차권제를 일반승객에게도 확대함직 하다.

정기승차권제가 처음 채택되면서 그 대상으로 근로청소년을 포함한 것은 썩잘한 일이다. 지금처럼 학생에게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불공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기승차권을 區間制로하여 학생부담을 늘린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특히 일부보도처럼 정기승차권의할인율을 지금의 50%보다 낮춰잡는다면 학생부담은 2중으로 가중된다. 區間制가 부담할 몫은 물론, 거기 할인율 조정의 덤을 얹는다는 발상은 이해할수 없는것이다. 적어도 정기승차권의 50%할인과 어린이할인제도는 고수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며, 경로우대와 같은 정신으로 장애자를 위한 특혜조치도 강구되기를 바란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방안은 노인과 근로청소년에 돌아가는 혜택을 시민들이 부담한다는 얘기나 같다. 그러나 그결과는 시민들 사이의 부담轉嫁에 그치지를 않는다. 시민들의가중부담의 폭이 혜택의 폭보다 훨씬크므로, 새로운 버스업자도 폭을보는 셈이 되는것이다.

그대신 정부와 여당은 금년중에는 버스요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서민부담이 느는데, 요금을 안올린다고해서 무엇이 다른지 알수가 없다.

그래서 경로와 근로청소년 대를 위한 부담에, 의당한 몫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지않을 수가 없다. 그몫의 하나는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그 부담을 일부나마 흡수한다는 운수업계의 자체노력이요, 다른 하나는 그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방안들은, 그대강은 모두환영하지만, 「종합개선방안」이라는 그 명칭은 너무나 거창하다.

택시의 LPG화와 고정월급제도마찬가지 지적이 가능하다. 두가지 모두 바람직하지만, LPG화의 혜택만으로 고정월급제가 정착될수 있을까의 의문은 것이다. 도급제 택시의 30년 타성, 영세한 택시업계의 체질, 회사와 기사간의 불신등은 선행조치없는 고정월급제가 빛을 흐림을 예고한다. 여기에 필요 한것은 사후대책아닌 사전대책이다.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한 이 정책은 着想과 當爲만으로 대중교통의 고질이 고쳐지지는 않는다. 名實相符한「종합개선방안」을 기다리고자한다.

政局往來

"都市소비자는 무섭고 농민은 두렵지않다는 輕視풍조버려야"

農水產委 食生活 개선등 4개小委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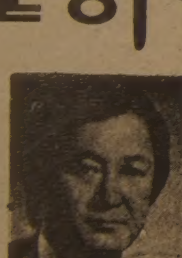
放送局 신규許可 文公長官 추천서로

韓日議員聯 간사장 李相翊議員을 선임

人事異動

本社來訪

이대환 不動產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매상 : $5,500 아스킹 : $18,950 네트 : 년 $120,000
렌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 도나스 샾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0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넬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 햄버거 샾
●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스페셜·세일

● 조 기	1BOX(33LB.)	$42.95
● 가도야참기름	CAN	$ 8.95
● 기쯔네우동	BOX	$19.50

—— 배달 합니다. ——

동 양 식 품

1662 Jane St. 248—5131

쿠바에 飛行中隊제공

蘇서 미그23機

美國務省 앤더스차관보 "中美전복基地로이용"

【워싱턴1日AP=聯合】 쿠바가 소련으로부터 두번째로 미그23機1개비행중대를 공급받았다고 토머스·앤더스미국무성 미주담당차관보가 1일밝혔다.

앤더스차관보는 이날 상원의 한특별소위증언에서 그와 같이밝히고 서반구에서의 미국의 안보이익이 쿠바가군사력을 외부에까지 투입시키고 니카라과를 중미에대한 무장정부전복기지로이용함으로써 크게 위협받고있다고말했다.

앤더스차관보는 만일 미국이 엘살바도르정부에 군사·경제원조를 중지한다면 이나라가 민주주의국가로 남을수 있는 희망이 사라지게된다고 경고하면서 현재 엘살바도르 내란사태가 매우 심각한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지적했다.

西方세계서도 미온적反應

美TV프로「波는 波대로」방영

레이건도 출연

【런던1日聯合】 레이건美대통령을 비롯, 서방수개국지도자들과 할리우드 스타들이 출연, 폴란드에의 동정을 호소한 美TV프로 「폴란드는 폴란드대로」는 1일 소련및 폴란드당국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은 한편 서방세계국가들로부터도 대체적으로 미온적인 반응을 얻는데 그쳤다.

누가 注射를 놓았는가

植物人間된 巨富의 相續女

미국 로드아일랜드州 뉴포트의 백만장자인 아내마르타 폰·블로우여인(50·애칭 서니)을 재기불능의 식물인간으로 만든 혐의로 기소된 클라우스·폰·블로우(55)의 재판이 1일 개정되었다.

피고인 남편 클라우스는 석유재벌 폴·게티의 수석보좌역을 지낸 세계적명사이며 식물인간이 된 부인 서니는 5천만달러상당의 재산을 가진 부호여서 화제와 논쟁이 꼬리를 물고있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담당판사와 16명의 배심원이 13개월전 사건 발생현장인 클라우스의 거대한 저택을 답사키로 결정했다.

사생활 침해라는 변호인측의 항의를 묵살하고 판사와 배심원만은 베르사유 궁전과 맞먹는다는 호화별장의 현장을 검증했다.

이날 현장검증에 기자들의 저택출입이 금지되자 TV방송과 신문사는 1대의 경비행기와 3대의 헬리콥터까지 동원, 저택위를 비행하며 사진을 찍는등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다.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클라우스가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최고40년의 징역형을 받게된다.

현재 뉴욕맨해턴의 콜럼비아장로교회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서니는 80년12월20일 혼수상태가 되어 쓰러진 이래 재기불능의 진단을 받고있다.

담당의사는 혼수상태의 원인이 『혈액속 인슐린 함량의 과다』라고 진단하고 환자의 체내에서 인슐린이 과다생성되었다기보다는 외부의 주입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었다.

14개월이 나된 이사건이 문제가 된것은 어머니의 혼수상태에 의심을 가진 아들 알렉산더가 변호사와 상의, 사설탐정을 고용하여 의붓아버지 클라우스의 방 벽장속에서 인슐린약병과 주사기가 든 검은 가방을 찾아낸후 검찰에 고발한데서 비롯됐다.

뉴포트카운티 대배심은 81년7월 클라우스를 살인미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클라우스가 자신이 상속인으로 되어있는 5천만달러상당의 아내재산을 차지하고 정부 알렉산드리아(35)와 놀아나기위해 서니에게 두차례에걸쳐 다량의 인슐린을 주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니는 79년12월25일 혼수상태로 쓰러졌다가 일단 회복된뒤 80년12월1일 뉴욕의 아파트에서 또 한차례 쓰러졌고 12월20일 다시 쓰러져 현재의 식물인간상태로 빠져들었다. 서니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않자 뉴포트병원 담당의사들이 서니의 인슐린함량검사를 해본결과, 정상인은 혈액속의 인슐린함량이 1㎖당 20~1백마이크로·유니트인데비해 서니는 2백16마이크로·유니트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인슐린이 체내에 생성되려면 췌장염이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데 검사결과 서니에게는 췌장염증세가 없어 인슐린의 외부주입가능성이 제기되었다.

79년 첫 혼수상태부터 이상한 느낌을 가진 서니의 아들 알렉산더와 딸 알라는 이같은 병원진단을 토대로 행동을 개시했다.

뉴포트저택의 의붓아버지 방에서 발견된 검은가방속에서나온 3개의 주사바늘중1개는 사용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바늘을 어머니담당의사인 리처드·스택에게 의뢰, 시험해본결과 주사바늘에서 인슐린과 아미탈, 발리움등이 채취되어 결정적인증거로 제시됐다.

검찰의 살인미수 혐의기소에대해 클라우스측은 혼수상태는 인슐린과다외에도 아스피린중독, 페노발비탈과용, 너무추운방에 잠잔것등이 원인이 될수있으며 서니는평소 하루 20알정도의 아스피린을 먹었고 서니가 화장실에 쓰러졌을때의 실내온도가 5~8도로 추운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서니가 3년전부터 건강이 극도로 악화하여 알콜중독자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등 절망상태였고 당분이 많은 아이스크림을 즐겨먹어 체내에 인슐린이 자연 생성될수도있다고 주장한다. 또 변호인측은 서니가 자기재산 68%를 남편에게 물려주도록 유언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무엇때문에 미련한 짓을 하느냐』고 항변하고있다.

클라우스의 측근은 서니의 남편에 대한 지나친 신뢰에 반감을 품은 전남편 소생 자식들이 조작한 사건일수도있다고 주장한다.

서니와 클라우스는 16년전인 66년6월 결혼했다.

피츠버그 공익사업의 왕으로 불리던 아버지 조·크로포드가 사망한후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미모의 서니와 미국뿐 아니라 유럽·중동까지 알려진 명사 클라우스와의 신혼초기는 행복했다.

이들은 뉴포트에있는 서니소유의 웅장한 호화맨션을겨울용으로 놔두고 맨해턴에있는 고급아파트를 18세기 스타일로 호화롭게 치장, 주로 여기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첫딸 코시마를 난뒤 서니는 점점 사람들을 싫어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 활동적이고 사교를 좋아하는 클라우스와 틈이 생겼다.

서니의사람기피증은3세때 아버지를 잃은뒤할머니와 어머니의 과잉보호로,애완동물처럼길러진것이 원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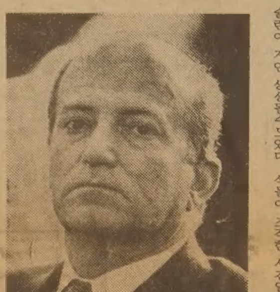
서니의 야외복은 파리의 「디올」에서 특별주문한 것이었고 뉴욕의 오페라관람과 유럽여행외에는 「보석 사는 것」이 유일한 낙이다.

부부사이의 틈이 갈라지자 클라우스는 최근 배우인 알렉산드라·아일스를 사귀게 되었고 80년12월 서니가 혼수상태에 있을때도 플로리다로 함께 휴가여행을 갔다.

1월의 청문회에이어 시작된 재판은 클라우스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클라우스 변호인은 재판의TV방영금지와 알렉산더가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발견한검은가방의 증거채택을 거부했으나재판부는 모두기각하고말았다.

【뉴욕支社=崔卜林기자】

◇식물인간 서니女史 5천만달러 상당의 재산을 가진 서니 여인이 재기불능의 식물인간이 되어있다.



◇아내 殺人미수로기소된 남편 아내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클라우스.

인슐린過多원인 犯人으로 남편검거

의붓아들, 私設탐정고용 약병등 찾아

美國版「尹甲富 살인사건」…裁判部선 증거채택 기각

페灣 6國, 석유武器化 합의

GCC協力협의회 石油相회의 閉幕

◇무바라크·미테랑會談 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左)이 1일 엘리제宮에서 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하고있다. 【파리1日AP=聯合】

先進國협상 집단對應

정책調整 閣僚委설치

【리야드1日UPI·WAM=聯合】 사우디아라비아등 페르시아灣협력협의회(GCC) 6개국석유상들은 1일 단일석유정책수립및 석유무기화정책등에 합의한후 2일간의 회의를 폐막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의 WAM통신은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등 6개국석유상들이 지난해5월 GCC창설이래 처음열린 이번 리야드회의에서 이밖에▲선진공업국들과의 무역협상에 집단대응할것 ▲석유정책을 조정할 상임각료위원회설치▲석유시장을 조사하고 정보및자료들을 교환할 각국국영석유회사들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설치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들 석유상들이 『GCC회원국중 어느 한 국가에라도 공격행위를 가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석유와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사용하기로 합의』, 석유를 무기화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 이들이 지난 31일밤의 비공개회의에서 6개국의 석유일부분을 취약지대인 호르무즈해협대신 오만灣을 통해 수출하기 위한 송유관망의 설치가능성에 대해서도 토의했다고 밝혔다.

基本油價인하壓力

세계市場, 공급과잉·需要감퇴로

【뉴욕1日UPI=聯合】 세계석유시장의 유가는 현재공급과잉과 수요감퇴등으로 계속약세를 보여,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들은 기본유가인 배럴당34달러에서 또한차례 인하하도록 압력을받고있다고 1일 권위있는 주간석유정보(PIW)誌가 보도했다.

埃、對리비아 國境개방

무바라크 訪美맞춰 強硬아랍國에 解氷조치

【카이로2日AP=聯合】 이집트는 2일 호스니·무바라크이집트 대통령의 미국방문과때맞추어 리비아와의 국경지역을 재개한다고선언, 이집트와 강경아랍국가들에 대해 지금까지 가장 구체적인 해빙조치를 취했다.

이집트관리들은 국경개방발표의 시기가 무바라크 대통령의 방미와 때맞추어 나온데 대해 애써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려하지 않았다.

이집트는 지난77년의 리비아와의 국경전이래 리비아접경구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3년전 이스라엘과 중동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집트·리비아 국경을 폐쇄, 국경지역에 거주하고있는 이집트노동자들이 북부아프리카지역에 취업할 경우 카이로를 경유해야 하는등 불편을 초래해왔다.

수슬로프 死亡에 心身의 피로느껴

브레즈네프

【모스크바1日AFP=聯合】 소련공산당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는 소련공산당 최고이론가 미하일·수슬로프가 지난달25일 사망한후 정신적충격을 받았으며 현재 「심신의 피로」를 느끼고 있다고 모스크바의 정통한 소식통들이 1일 전했다.

◇터키領事 저격혐의로 체포된 서수니언君 로스앤젤레스 주재 터키 총영사를 저격한 혐의로 체포된 햄피그·서수니언君。그는캘리포니아州 패사디나 출신으로 나이는 19세。【로스앤젤레스1日AP=聯合】

"日방위계획 앞당겨"

GNP1%壁등 早期돌파 가능성비쳐

스즈끼 日首相

【東京1日=聯合】 스즈끼·젠꼬(鈴木善幸) 일본수상은 1일하오 중의원에서 오는87년 끝나는 방위계획대강을『1년이라도 앞당겨 달성하고싶다』고 말해 일본내 보수세력과 미국이 끈질기게 요구하는 방위계획대강의 조기달성에적극적인자세를보였다.

스즈끼수상은 또 방위비의 국민총생산(GNP)비율1%이내원칙에 대해서도『국제경제가 격동하고 있기때문에 GNP도 움직이게 마련』이라고 말해 방위비의 GNP1%선 조기돌파 가능성을 비쳤다.

메아리

非武裝 地帶

북한에 대한 정부의 20개시범사업제의 가운데 비무장지대에 관한 언급이 3개항이나 들어 있어 새삼 이지역이 남북간에서 차지하고있는 비중을 짐작하게 했다.

1953년7월 휴전협정이 성립되면서 우리 국토를 가로지르며 그어진 비무장지대는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인적이 거의 끊어져 그 이전 인위적으로 입혀졌던 자연의 상처가 많이 아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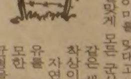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 2㎞씩의 간격을 두고 설치된 폭 10리의 이지대를 높은 지점에서 굽어보면 마치 초록색 띠를 두른듯 하다.

그 초록색 푸른띠 속에는 곰·멧돼지·철새등 60여종의 야생동물이 마치 동화속의 세계를 살듯 평화를 누리며 사람과 사람, 그것도 한핏줄을 나눈 동족끼리의 대치에서 오는 긴장의 현장인 것에 아랑곳이 없다.

날짐승과 들짐승들은 비무장지대에 담긴 인위의 자취에 구애됨이 없는데 사람은 정작 얼씬도 못하여 남과 북의 사람다운 기맥이 서로 통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비무장지대가 인위의 소산이면서 그로하여 되려 원시의 제모습으로 회생해 가고 있다면 사람들도 마땅히 사람다움의 제모습을 찾고 제자리로 아물리는데 인색하지말것이 순리이다.

비무장지대안에 공동경기장을 마련하여 남북이 서로 친선경기를 열어보고 그사이 인적이 끊인동안의 자연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를 같이 이마를 맞대고 알아보며 비무장지대의 이름에 걸맞게 모든 군사시설을 드러내자는것과 같은 생각은 누구나 해봄직한 착상이요 희망이다.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여유를 주지 않는 인간의 무모한 개발행위가 생태학적인 균형을 잃게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려 하는 현실에서 대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우리의 생존 가능성을 돕고 있는것이 비무장지대가 지니는 중요한기능의 하나같다.

이번 우리의 비무장지대 활용 제의로 이 푸른숲띠가 민족화합의 구심점으로, 좀더 나아가서는 통일의 디딤돌로 구실을 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해진다.

북의 호응으로 비무장지대를 통하여 남북이 서로 인간적인 따사롬을 나눌수 있었으면 한다.

바웬사 秘密메시지

"폴란드 軍政은 세계 輿論誤導"

【파리1日AP·AFP=聯合】 폴란드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는 1일 프랑스의 르몽드紙에의해 보도된 메시지를 통해 폴란드국민들에게 군사정권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말라고 촉구했다.

현재 바르샤바근교에 억류되어있는 바웬사는 西方으로 비밀리에 반출된 이메시지에서 폴란드계엄정부가 국민과 전세계의 여론을 오도하고 조작해왔다고 지적, 더이상 국민의 신임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난한것으로 르몽드지가 전했다.

바웬사는 또 계엄당국을 비난하는 메시지와함께 자신의 구금명령서 사본을 친구들통해 西方에 공개하고 바르샤바 군사계엄 통치자들이 지난해12월 계엄령선포 하루전인 12월12일자에 작성된 구금명령서를 금년 1월26일에야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바웬사도 큰役割

波自由勞組존속

【본(서독)1日AFP=聯合】 폴란드의회의 한 중진인사는 1일 자유노조가 존속할것이며 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도 노조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각국 社會主義政黨들 蘇共産黨과對話 意味없어

"폴란드事態 상황好轉되면 可能"

【암스테르담2日AFP=聯合】 세계각국의 사회주의 정당들은 대부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대회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예정인것으로 1일 알려졌다.

네덜란드 노동당은 이날성명을 통해『현 폴란드사태가 지속되고있는 한소련공산당과의 대화는 별의미가 없을것』이라고 밝혔는데 네덜란드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세네갈 베네수엘라등이 대표단을 파견하지않을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海外토픽

곤란당해도 眞實을

★테레사修女 新聞에 일침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 공로로 1979년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테레사수녀(72)는 1일 신문에 대해『진실을 쓰다가 곤란을 당하더라도 언제나 진실을 쓰라』고 일침.

테레사수녀는『사람들의 심성에 영향을 주므로 생활의 궂은 면을 들추지 말고 사람들이 他人에 대해 어떻게 봉사하는가 등등 아름다운 일들만 쓰라』고 권고했다.

테레사수녀는 하느님의 소명을 받고』설립됐다는 자신의 자선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또 바라던대로 성공을 거두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나는 어제를 결코 생각지 않는다 지난날의 일들을 깡그리 잊으며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생각할 것도 없고 다만 오늘만 생각한다』고 자신의 인생관을 밝힘으로써 이에 대답 【뉴델리=AP】

상류층이 美지배

★메리매크大댈핀博士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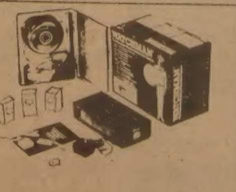
미국사회는 현재 최상류층인사들에의해 지배되고있으며 부자는 더욱많은 부를 축적하고있는반면 가난한자는 상류층으로 진입할수있는 기회를 갖지못하고있다고 미매사추세츠주의 메리매크대학 사회학교수인 존·댈핀박사가 31일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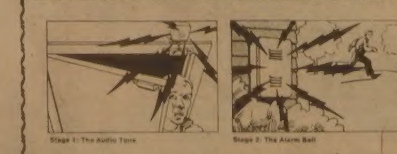
댈핀박사는 이날 자신의 저서『지속되고있는 미국의 사회적 불평등』의 내용에언급하면서『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것의 절반을 2백50개 가문에 의해 지배되고있는 1백50개대기업이 차지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유층에 유리하게 돼있는 현세제와 교육·인종·민중·재정·종교적장애가 귀족사회를 영속화시키고있다고 말하고 현미국사회에는 명문교와 같이 최상류층만을 육성시키기 위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드앤도버=UPI】

SUN-LIFE
생명보험..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WATCHMAN™
PATENTED SECURITY SYSTEM
도둑을 방지합시다
(도난방지기 세일)
당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어느 장소나 아름다운 현대식 모양으로 특별한 도구나 기술없이도 장치가능합니다. 이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PHONE NOW (416) 661-3161
사 장 : 쎈 디
한국인 : MRS. LEE
AFTER HOUR(EVENINGS)
742-2421 MRS. 리





Manufacturer's suggested list only $299.95
coltron International Inc.
864 Alness St., Downsview (Toronto), Ont., Canada, M3J 2H5
I AM INTERESTED IN THE WATCHMAN SECURITY SYSTEM PLEASE CONTACT IMMEDIATELY
NAME
COMPANY
ADDRESS
PHONE
TYPE OF BUSINESS: RETAILER □ WHOLESALER □ DISTRIBUTOR □

아직도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캐나다 교포사회에서의 유일한 일간지이며, 우리 이민생활의 반려자입니다.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며, 교민사회의 거울로 언제나 그리운 고향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와 함께 교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잠시도 휴식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사 (416) 533-2361
구독료 : 월9달러, 6개월 50달러, 년99달러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NAME
ADDRESS APT
CITY PROVINCE
POSTAL CODE PHONE

金基澤·許永模 8強진출

프레지던트컵 아마복싱 埃선수에 각각 失格·判定勝

【자카르타1日휋=聯合】한국의 金基澤(라이트플라이급)과 許永模(라이트플라이급)는 1일 자카르타에서 개막된 제5회 프레지던트컵 국제아마추어복싱선수권대회 첫날경기에서 이집트선수를 각각 물리치고 2회전에 진출했으며 웰터급의 金東吉도 부전승으로 역시 8강대열에 나섰다.

許는 파우크·아들리·아지즈를 착실히 공략한끝에 판정승을 기록했으며 金은 압둘·막문이 3회전에서 벨트라인이하를 때리지 말라는 주심의 3번째 경고를 받은후 실격당함으로써 승리했다. 이집트선수단은 이 판정에 불복, 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여 한때 소란이 일었다.

金東吉도 不戰勝…막차合流

개막경기에서는 이밖에도 주최국인 인도네시아가 3승을, 蘇聯·파키스탄및 美國이 각각 2승, 日本과 이탈리아가 각각 1승을 기록했다.

金義明 一軍선수로
近鐵新人으로는 파격적대우

日本프로야구 긴데쓰(近鐵)팀에 입단한 재일동포 金義明이 1년생 신인으로는 파격적인 1軍선수로 뛰게된다.

세끼구찌(關口) 긴데쓰감독은 지난달 28일 『金을 주력선수(15위)의 일원으로 넣어 철저한 타격연습을 시키겠다』고 말하고 『그를 특별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면밀히 그의 타격을 관찰한뒤 내려진 결론』이라고 밝혔다.

「긴데쓰의 스타」로 각광을 받고있는 金은 졸업시험(報德學園) 때문에 연습을 쉬고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주위 사람들의 시샘의 눈총이 무서우나 될수있는대로 긴장하지않는 가운데 필사의 노력을 할것』이라고 다짐. 세끼구찌감독은 金을 1軍에 넣는것은 『자신이 어느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가를 알게하고 선배선수들의 장점을 간파할수 있게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外紙에서】

코너즈 1천弗벌금
국제프로테니스委

【뉴욕2日UPI=聯合】국제남자프로테니스위원회는 1일 美國의 지미·코너즈가 최근 한대회에서보인 불손한 행동으로 1천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이로인해 1일부터 21일간 여하한 수요대회에도 출전할수 없게됐다고 확인했다. 코너즈는 앞서필라델피아에서 열린 美國실내선수권대회 준결승전에서 불손한 행동을 한 이유로 1천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은바 있다. 이에대해 코너즈는 벌금선고에는 이의를 제기한것이나 앞서 3주가량쉴 예정이었기 때문에 출전정지조치는 따를것이라고 말했다.

이반·렌들優勝
濠세계테니스大會

【델레이비치(美플로리다州)1日UPI=聯合】체코의 이반·렌들(21)은 31일 美플로리다州의 델레이 비치에서 벌어진 총액30만달러상금의 WCT(세계챔피언십테니스)대회 남자 단식결승에서 濠洲의 피터·맥나마라를 6-4, 6-4, 7-5로 누르고 우승, 10만달러의 상금을 따냈다.

또한 이날 남자복식결승전에서는 美國의 엘리어트·텔처, 멜·퍼셀조가 토머스·스미드(체코), 발로즈·타로치(헝가리)조를 6-4, 7-6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체력·신장 劣勢딛고 逆轉劇
한국, 스웨덴꺾고 優勝

延長戰끝에 한골차 辛勝 29-28
林英喆·姜泰求 10골씩 넣어 殊勳

쿠웨이트 國際핸드볼

【매나마1日=聯合】쿠웨이트 제2회국제핸드볼대회에 출전중인 한국 남자대표팀은 1일밤 쿠웨이트의 아라비홀에서 거행된 결승전에서 연장전끝에 스웨덴을 29-28로 물리치고 패권을 차지했다. 한국남자 핸드볼팀이 국제대회에서 우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대표팀은 이날 스웨덴의 국내랭킹1위이자 사실상 국가대표팀인 사부르 클럽팀을 맞아 체력과 신장의 열세로 초반부터 고전을 거듭하다가 후반들어 추격전을 전개, 타이를 이룬뒤 연장전에 들어가 한골차로 신승했다.

한국팀은 특히 전날 중공과의 준결승에서 체력을 상당히 소모했기때문에 패스미스를 연발하고 슈팅도 불발, 전반을 10-11로 리드당했다. 그러나 밴드까지 동원한 大林건설근로자 3백여명등 한국교민들의 열렬한 응원속에 후반 5분께부터 속공과 양쪽사이드를 이용한 드라이브인 숏이 주효하면서 스웨덴을 따라잡기 시작, 한골씩을 주고받는 역전극을 23-23으로 전후반경기를 마치고 10분간의 연장전에 들어갔다.

연장전에서 한국팀은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조직적 팀플레이를 구사, 31일 심한 현기증으로 잠시 입원까지 했던 朴秉洪이 2골을 넣는 맹활약을 보인끝에 6-5로 리드, 총29-28로 신승했다.

이날 경기에서 林英喆과 姜泰求가 각각 10골씩을 성공시켜 수훈을 세웠다. 한편 3·4위전에서 中共은 27-24로 쿠웨이트를 눌렀다.

◇결승전

한국 29	10	13	6 (연장전)	28 스웨덴
	11	12	5	

◇3·4위전

중공 27	14	13	24 쿠웨이트
	15	9	

全斗煥大統領 祝電

全斗煥 대통령은 2일 쿠웨이트에서 열린 제2회국제핸드볼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국선수단에게 축전을 보내 치하 격려했다.

해설 세계무대進出 가능성보여…難敵 日타파가宿題

한국남자핸드볼팀이 쿠웨이트 국제친선대회서 우승을 차지, 오는11월 열리는 印度 아시안 게임에 밝은 전망을 던져 주었다. 아시아의 강호는 日本을 비롯해 한국·中共·쿠웨이트등 4개팀. 한국이 이번대회 결승서 유럽의 강호 스웨덴의 사부사무브팀을 연장전서 꺾은 것은 큰 수확이 아닐수 없다.

핸드볼은 전통적으로 유럽, 특히 東歐권이 강세를 보이고있다. 이번에 東歐팀들이 출전치 않아 실력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스웨덴을 꺾음으로써 한국은 東歐권수준에 접근해 가고 있다고 할수있다.

남자핸드볼이 제일 먼저 타파해야할 문제는 日本. 한국은 올림픽예선, 아시아선수권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예선등 각종 대회에서 日本과 8차례 대전을 가졌지만 8패를 당하고 있다. 한국이 가장 최근 日本과 대결한것은 작년 10월 캐나다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지역 예선. 한국은 이때 日本에 완패했는데 日本은 쿠웨이트에 패배했었다. 日本을 이긴 쿠웨이트를 한국이 18-15로 제압, 한국이 日本을 이길수있다는 가능성은 보여주었지만 아직 미지수이다.

남자핸드볼이 아시아지역을 탈피, 세계무대로 가는 길목에는 꼭 日本이 도사리고 있었고 日本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었다.

한국과 日本의 수준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실제 대결에서는 꼬리를 밟혀온것이 사실. 남자핸드볼의 숙제는 어떻게 하면 하루 빨리 日本벽을 허물어뜨리느냐는것. 그래야만 세계무대로 도약할수 있는 길목이 트이고 印度 아시안 게임서도 우승을 바라볼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회서 한국이 거둔 또하나의 전과는 中共을 연파한것. 77년 제1회 아시아핸드볼 선수권대회서 中共과 첫 대결, 한국이 승리한 이래 이번 까지 4차례 대결, 4전전승을 거두어 中共 콤플렉스는 완전히 씻었다고 할수있다. 【炳】

美프로권투 흥행사제의
개런티3百萬弗 지급
해글러, 對베니테스戰수락땐

【라스베이가스2日AP=聯合】美國의 유력한프로권투흥행사인 돈·킹씨는 WBA·WBC 미들급 통합챔피언인 마빈·해글러(미국)가 WBC 슈퍼웰터급 챔피언 윌프레도·베니테스(푸에르토리코)의 대전제의를 수락할경우 해글러에게 3백만달러(약21억원)의 개런티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세계 웰터급 통합챔피언 레너드와 베니테스간의 재대결이 이루어진다면 두선수에게 천문학적 액수의 개런티가 보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베니테스는 레너드와의 대전에 언급, 전세계의 팬들이 이대전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있다고 말했다.

남자排球대표팀 改編
鄭龍河·李載求등 세터2名補強

대한배구협회는 2일 남자대표팀의 일부선수를 개편, 鄭龍河(조선대) 李載求(문일고)등 2명의 세터를 보강하고 車佳鉉(금성)을 제외시켰다. 한편 협회는 아시안게임, 남녀 세계 선수권 대회에 대비한 남녀 국가 대표팀을 오는 3월초까지 확정 지을 예정이다.

◇새로운 종목의 개발만이 메달 획득의 길이라는 남자체조대표코치 趙成東씨.

체조 趙成東코치

뉴델리로 가는길
82아시안게임 强訓場의 主役들
"새種目 개발이 메달획득 첩경"
張太銀·李香林등기대 경험부족이 最大難題

『아시아를 제패하는 자는 세계를 지배할수있다』 아시아 선수권대회나 아시안 게임의 金메달에는 바로 세계정상급의 수준을 인정받는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배구나 유도에서도 마찬가지.

日本은 蘇聯을 능가하는 체조강국. 81년 모스크바 세계선수권대회서는 비록 蘇聯에 1위를 빼앗겼으나 역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단체전서 日本은 蘇聯을 압도해왔다.

78년 아시안게임에서 日本을 누르고 세계무대에진출한 中共도 81년 첫 蘇聯 나들이에서 세계3위의 실력을 과시했다.

日本이나 中共에 크게 뒤질것 없는 체격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체조의 오늘은 어둡기만 하다. 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에서 거둔 李淑濟의 평행봉 金메달, 金國煥의 링 金메달이 한국체조가 국제대회서 거둔 처음이자 마지막 전과이다.

스포츠 정책부재, 특히 「기본종목」이라고 말로만 떠들고있는 체조의 근본정책부재가 한국체조의 현실이다. 한국체조는 아름다운 요정들의 율동을 즐기는 소수사람들의 기호품으로서 명맥을 잇고있다. 자선의 손놀편 수많은 회장들을 거치며 체조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데에만 최선을 다해왔다.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할뿐이지요. 변한선수, 변한 정보…그러나 아무것도 하지않으면 더욱낙후될테니까 어떻게든 뛰어보아야지요』

泰陵선수촌 개선관, 난로불에 언손을 녹이며 趙成東체조 남자대표코치는 86·88년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은 커녕 코앞에 닥친 뉴델리 아시안 게임에서 조차 어떻게 메달을 따낼수있을가, 고심하고있다. 전반적인 체조의 육성책이 없는 마당에서는 어차피임기응변의 지혜를 짜내 겨를수밖에없다.

『눈에 띌수 있는 큰 동작, 고급 난도의 종목개발이 이번 강화훈련의 과제입니다. 현재 張太銀(서울체고)이 평행봉에서 신종목을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고, 權五暎의 평행봉에도 기대가 큽니다』

張太銀은 평행봉에서 반바퀴 비틀어 앞으로 공중돌기의 어려운기술을 익히고있다. 남자팀의 고충은 선수들의 국제경기경험 부족으로 더 크다.

여자체조팀중에는 78년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李香林 李順禮 鄭鎭愛등이 포함돼있어 남자보다는 開眼된편. 그러나 기술연결의 세련미는 여전히 뒤떨어진 상태다. 여자팀의 崔淑姬코치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연기자를만들어 내느냐』가 큰 숙제다. 崔코치는 우리선수들이 갖지못한 연기력을 찾아오겠다는 기대를 안고 29일 東京에서 열리는 美·日친선 규정종목 발표회에 떠났다.

체조에대한 관심과 투자의 성과를 찾는것이 아니라, 체조에대한 관심과 투자의계기를 찾기위해서 체조일선코치들은 뉴델리의 金메달을 간절히 소망하고있다. 【方錫鉤기자】

◇日本에 온 마라도나 세계축구의 새로운 별 디에고·마라도나(21살)。아르헨티나 보카·후니올스팀의 일원으로 최근 日本을 방문, 日本대표팀과 친선경기를 가진후 털코트를 입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모습이다. 「제2의 펠레」 「초음속 FW」로 불리고있는 마라도나는 16살때 아르헨티나 대표팀 멤버로 발탁되었으며 『가장큰 목표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대해 『월드컵을 차지하는것』이라고 다짐했다.

국제올림픽 委員長 오는4월7일 來韓

【로스앤젤레스1日=聯合】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후안·안토니오·사마란치회장이 88서울올림픽대회준비에 관한 조사및 협의차 오는4월7일 韓國을 방문한다. 이 방문일정은 지난 주말 曺相鎬韓國올림픽위원회(KOC)회장과 사마란치회장이 로스앤젤레스부근의 헌팅턴·힐튼호텔에서 회담한뒤 밝혀졌다.

18일부터 冬季스키
龍平서 國校노르딕등 新設

대한체육회는 제63회전국체육대회 동계스키대회를 2월18일부터 3일간 龍平스키장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대회의 경기종목은 알파인의 활강, 회전, 대회전, 신복합등 전종목과 노르딕경기로 나뉘어져있는데 금년부터 국민학교부 노르딕경기를 신설, 남자 4㎞, 12㎞계주, 여자5㎞, 10㎞, 15㎞계주를 각각 개최키로 했다.

文化短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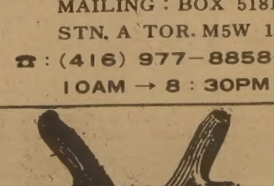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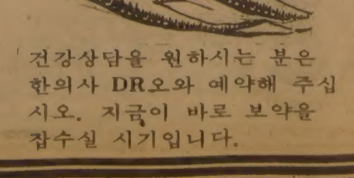
22일 藝總정기총회

예총 21차 정기총회가 22일 하오2시 문예진흥원내 문예회관에서 열린다. 토의안건은 82년 사업계획및 예산안 심의.

한소리회 단소講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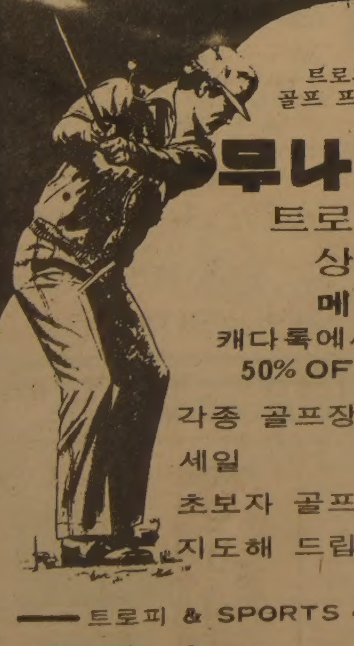
한소리회 11회 월례단소무료강습이 8일~20일 2주간 상오11시 하오5시, 7시 한소리회 사무실에서 개최된다. 국악동호인 모임인 한소리회가 국악보급을위해 주최하는 사업. ㉖9892.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 가요, 문학, 영화, 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中國良藥 大量供應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광고 신청은
한국일보사
● 일반광고 : 최성조
● 매매구인광고 : 박경옥
533-2361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기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 · 가수 · 무용단 매일 공연함
연중무휴
장소 :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소 : 529 BLOOR ST. W.
전화 : 533-3545~6, 533-1500

"無罪쇼크"…再搜査등 多角대책

高淑鍾피고抗訴… 2審 有罪立證위해 안간힘

"見解差…「증거의 壁」넘겠다" 强力사건 初動서부터 指揮 — 검찰

尹景花씨 피살사건의 高淑鍾피고인(46)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검찰은 증거보강등을 이유로 금명간 경찰에 이사건 재수사를 지시할 계획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이번의 판결이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새로운 판결의 경향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전제,『과거의 재판에서도 명백한증거를 요구,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난사건이 많았다』고 지적하고『이사건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高피고인의 혐의에대한 법원과 검찰사이의「견해의차」』라고 주장했다.

搜査공신력 실추·士氣저하 對策腐心

따라서 서울지검은「검찰의 이같은견해」에따라 새로운 증거의보강등 2심에서의 유죄입증을위해 재판간여검사들을시켜 수사기록과 공판조서를 재검토하는등이미 공소유지를위한 보강수사에 들어갔다는것.

한편 또다른 관계자는 경찰에「증거보강」을 포함한 재수사를 지시하는것은 2심에서도 이사건이 1심의 판단이 유지되는경우 진범을잡기위한 원점재수사가 될가능성도 있다는점을 인정, 검찰과 경찰이 尹景花씨 피살사건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검찰은 최근잇달아 강력사건이「증거의벽」에 부딪쳐 검찰과 경찰수사요원들의 사기와의욕이떨어지고 국민들의 수사공신력에대한 불신감이 깊어지는점등에 대비키위해 대검과서울지검이 각각 잇달아 간부회의를 열고「강력사건의 자체수사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있다.

대검이 강구하고있는 강력사건 수사강화방안은 종전의 지침을 골격으로하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되기위해▲중요강력사건의경우에는 초동수사단계부터 담당검사로하여금 실질적이고 책임있게 경찰수사를 지휘, 증거수집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고,▲경찰수사 과정에서 용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등 어떠한불법적행위(威嚇)도 가할수없도록 수사지휘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며▲일단 경찰로부터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자백의 임의성에 최선을 다하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이 뒤집어지거나 검찰자백조차 번복될경우에 증거의 재보강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 기소하도록 하는것등 수사기술상의개선방안인것으로 알려졌다.

새벽 陸橋밑 清掃夫 轢死

2일상오6시20분께 서울江南區盤浦洞353 주공2단지 정문육교밑에서 청소를 하던 강남구청청소과직원 李富永씨(46·서울冠岳區奉天9洞102)가 청소를 하기위해 건너편길로 건너다 고속버스터미널쪽으로 가던 한진운수 소속 서울4파6460호 포니택시(운전사 黃理煥·26)에 치어 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졌다.

지난73년부터 강남구청에서 근무해온 李씨는 이날상오6시께 출근, 담당구역에서 작업하다 변을당했다.

鄭載巴군 拘束연장
여대생事件 證據보강뒤 12일께起訴

상경여대생 朴尙恩양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鄭載巴군을 구속한 서울지검 東部지청은 2일 鄭군의 구속기간을 오는 12일까지로 연장했다.

검찰은『강력사건의 경우 구속만기까지 가는것이보통』이라면서『이기간중 증거를 보강하는 한편 재판자료를정리, 12일께 기소하겠다』고밝혔다. 그런데 검찰은 앞서 鄭군의구속을 발표할때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었다.

美 샌앤토니오市 자매결연위해 光州상공인단 向美
金시장 인솔20명…本社주선으로 結緣

金良培 光州시장과 이지방 상공인대표등 20명은 美텍사스州 샌 앤토니오市와의 자매결연식에 참석키위해 2일 하오 출국했다.

이들은 오는 4일 하오1시(현지 시간) 샌 앤토니오市에서 자매결연조인식을 마친후 현지 상공인들과 상공교류에 관한협의를할 예정이다. 샌앤토니오市는인구82만5천명의 자유무역항으로 光州市(인구80만)와 비슷한 규모. 光州市는 자매결연을 계기로 상공인과 문화계 인사들의 상호방문을 통해 친선교류와 생산품교역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고, 샌앤토니오시장과 상공인 대표들도 오는3~5월께 光州市를 방문할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光州市대표단일행은 그곳시민들에게 光州市를 널리 알리기위해 각종연문소개 책자와함께 20분짜리 비디오 테이프도 준비해 가져갔다.

한편 두도시의 자매결연을 주선한 한국일보사는 이날裵成煥업무이사를 光州市대표단일행과함께 샌 앤토니오市에 파견했다.

"피부병에 特效"水銀환약쓴뒤 患者 2명 中毒입원
돌팔이製造…1명은불에태워 연기쏘여

【光州=聯】돌팔이 약장사가 피부고질병에 특효약이라고 판 수은으로만든 환약을 30대와 이를 불에피워 연기를 쏘인 환자 2명이 수은중독증상을 일으켜 전남대의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전남 昇州郡黃田面竹淸里664 鄭殷心씨(50)는 지난달15일 밀폐된 방에서「용두산」이란 구슬알 크기의환약을 화로불에피워 연기를쏘이다가 피부가 빨갛게타고벗겨지는 수은중독증세를 일으켜 전남의대 부속병원에입원 치료를 받고있고 咸平郡羅山面龍頭里339 鄭眞任씨(32)는 2백개들이환약 2봉지를 1개월째 복용해오다 지난달 11일 전신이 가렵고 피부가 벗겨지면서 가사상태에 빠져 입원했다.

전남대병원 피부과는 이들의 소변검사결과 모두일반인의 수은함유상한치인 ℓ당17.3 UG보다 10배가많은 1백70 UG의 수은을 검출, 이들이 사용한 환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卒業정원제후 編入學힘들다
전국11개大 3학년소수選拔 延·高大는 안뽑아

졸업정원제 실시이후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편입생 모집을 중단했거나 모집을 하더라도 3학년에 한해 소수인원을선발하는것으로 밝혀졌다.

2일 문교부에 따르면 금년도 편입생을 뽑기로 계획을 확정한 대학은 이날 현재 모두 11개대학 1천6백84명으로 서울이 4개대학에 8백37명이고지방은 7개대학에 8백47명이다.

이같은 숫자는 아직 전형일자와 인원등을 확정하지못한 成均館大·弘益大·東國大·光云工大·德成女大·嶺南大·朝鮮大등 서울과 지방일부대학의 모집인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2월에 실시된 각대학들의 편입생모집때 전국58개 대학에서 3천3백30명을 뽑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크게 줄어든 숫자이다.

新春 문화잔치「한국4大賞」시상식

◇「한국4大文化賞」시상식전에서 수상의 영광을안은 수상자들.

한국일보社제정「한국4大文化賞」시상식이 2일 하오2시 본사12층 강당에서 거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본사張康在발행인은「제14회한국創作文學賞」、「제12회 한국文學翻譯賞」「제22회한국出版文化賞」「82년도 한국신춘문예」수상자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 이들을 격려했다.

수상자들을 축하하기위해 시상식에 참석한 예술원회장 金東里씨는 축사를 통해『수상을 부채로알고 더욱 열심히 분발해줄것』을 당부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閔泳斌씨, 4大文化賞심사위원, 수상자들의 가족 친지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이 끝난후 수상자들과 하객들은 13층에마련된 다과회장에참석,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4大文化賞의 앞날과 발전을위한 대화를나누었다.

4大文化賞 수상자들은 다음과같다. (괄호안은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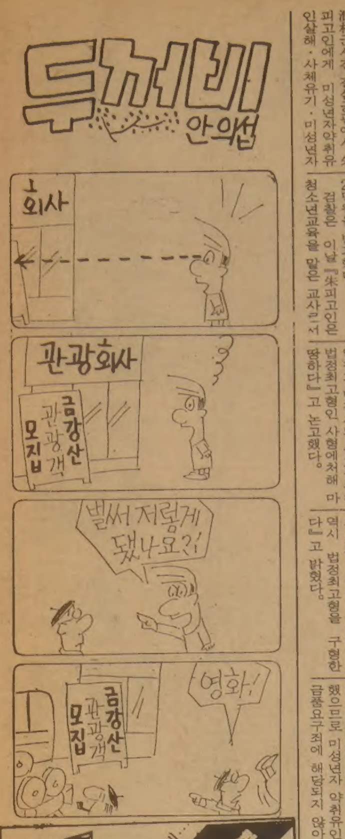
◇제14회 한국創作文學賞=崔一男(해치는소리·세故鄕)

◇82년도 한국신춘문예상▲시=朴守燦(馬夫)▲소설=李靖(母系史)▲시조=석성일(江가에서)▲동화=朴美淑(하늘낚시)▲수필=李淑子(겨울이야기)▲희곡=李炫錫(당구놀이)

◇제12회한국문학번역상▲시=佳作 김영진(朴木月원작<오른편>)▲단편소설=當選 존·홀스타인(崔仁勳원작<우상의집>)、佳作 鄭學俊(成耆兆원작<天地黑白>)▲장편소설=佳作 申鉉松(黃晳暎원작<客地>)

◇제22회한국出版文化賞◆저작상▲李盛雨(韓國食經大典)▲許興植(高麗科擧制度史硏究)◆제작상▲국민서관(한국의전래동화)▲휘문사(빛을 남긴사람들)▲삼성당(학생대백과사전)▲高大민족문화연구소(한국현대문화사大系)▲지식산업사(謙齋名品帖)▲圓光大출판국(傳燈…)▲서울大출판부(…十二歌詞)▲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학생과학대사전)▲峨山사회복지사업재단(장애자복지편람)▲도산문화사(한국회화)▲계몽사(컬러판세계의문학)

本社제정…2백여명모여 격려
創作文學·번역·出版·新春문예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朱永炯피고에 死刑구형

李潤相군 유괴殺害 共犯 李모양엔 無期

"다시는 이런犯行 없도록 極刑마땅" 檢察논고

서울地檢

李潤相군 유괴살해사건의 朱永炯피고인(29·전京西中체육교사)에게 사형이, 공범 李모양(18·Y여고2년)에게 무기징역이 각각구형됐다.

서울지검 柳濟仁검사는 2일하오 서울형사지법대법정에서 합의13부(재판장 申性澤부장판사)심리로 열린 李潤相군사건 결심공판에서 朱피고인에게 미성년자약취유인살해·사체유기·미성년자약취유인미수·자살교사미수죄를, 李양에게는 미성년자약취유인금품요구·미성년자약취유인미수죄를각각적용, 이같이 구형하고 같은공범高모양(18·D여고3년)에게는 범인은닉도피죄만을적용, 징역5년·단기3년징역을 구형하는한편 朱피고인에게는 상습도박죄를 추가적용, 벌금20만원을 병과했다.

검찰은 이날『朱피고인은 청소년교육을 맡은 교사로서 청소년의 안전을 지켜줘야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륜과 방종에 소비한 채무를 갚기위해 제자를 유인, 살해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교직에대해 돌이킬수없는 위신 폭락을 가져왔고 동료교사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면서『다시는 이같은 범행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사회의 염원과 법질서의 수호를위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에처해 마땅하다』고 논고했다.

검찰은 또 李피고인에 대해서도『어린나이에 朱피고인에게 육체를 유린당하고 사실상 세뇌를당해 범행한점은 동정할수 있으나 朱피고인의 빚의일부가 李피고인과의 유흥비로 인해 늘어났고 朱피고인이 潤相군을 유인하기 전 李피고인과 의논했을때 승낙했었다는 점등으로 보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역시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변론에나선 朱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丁廣鉉 변호사는『경찰에 검거된후 모든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은 정상이참작되어야 한다』면서『그가 범한 죄만큼의 형벌만이 내려져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李피고인의 변호인 金商泰변호사는『李피고인이 潤相군이 살해된뒤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미성년자 약취유인 금품요구죄에 해당되지 않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며 高피고인의 변호인 李世中변호사도『高피고인이 경찰에 허위제보편지를 쓸때 朱피고인이 유괴범인줄은 전혀 몰랐으므로 당연히 공소기각판결이내려져야할것』이라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朱피고인은『백번 죽어도 할말이없다. 죽을때 까지 潤相군의명복을 빌겠으며 潤相군 부모님께 용서를 바란다』고 말하고『다시는 이사회에 나같은 범죄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흐느꼈다.

검사논고가 낭독되는 동안 남편 李貞植씨(42)와 함께 방청석에 앉아있던 潤相군어머니 金海慶씨(42)는 오열을 삼키다가 끝내통곡, 재판장의 지시로 남편李씨에 의해 법정밖으로 부축돼 나갔다.

이에앞서 金씨는 朱피고인이 출정하자『내 가슴에못을 박다니…』라며통곡해 재판이 5분간휴정되기도했고 다시 개정된 재판에서도 계속 슬픔이 북받친듯 숨죽여울어 여러차례 재판장의 주의를 받았으며 그때마다 朱피고인은 괴로운듯 두손으로 얼굴을 감싼채 고개를 떨구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구형에 앞서 潤相군의 아버지 李씨와 수사를맡았던 전麻浦경찰서 수사과장 金容學경정(54)등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李씨는 증언을통해『사건은 해결됐으나 슬픔은 여전하다』면서『특히 최근 항간에 이상한 소문이나돌아 아들을 잃은 슬픔에 겹쳐 부부가 심한고통을 겪고있다』면서 괴로운 표정을 감추지못했다.

선고공판은 16일하오2시.

◇"백번죽어 할말없다" 사형구형을 받은 潤相군 유괴살해범 朱永炯교사. 朱교사는 최후진술에서『백번 죽어도할말이없다』면서 고개를 떨구었다.

◇이상한 소문에 苦痛
방청석에앉아 구형순간을 지켜보는 潤相군 아버지 李貞植씨와 어머니 金海慶씨. 아버지 李씨는 이날 증언에서『항간에 이상한 소문까지 나돌아 나와 애엄마는 2중의 고통을 받고있다』면서 괴로와했다.

2학기成績불량 慶尚大98명除籍

【晋州=聯】慶尚大는 2일 81학년도 2학기에 학사성적이 좋지않은 재학생 98명을 제적하고 2백25명을경고조치 하는등 모두 3백23명을학사징계했다.

제적처분을 받은 98명중에는 1학년이 93명으로 가장 많고 2학년 4명、3학년1명등이다.

한국일보 詩壇

떠나는 江

鄭建夫

떠날 것들이야 아무래도 떠난다지만
한줄기 빛으로 安住를 기다리는 江은
제 깊이 만큼의 아픔을 쌓아 올려
소리의 紋身을 남긴다

잎새마저 날려보낸 冬木은
뿌리째 떨며 江邊을 서성이는데
가슴을 비집는 바람은
또 나를 날려 보낸다

떠나는 것이 어찌 人生뿐이랴
떠나는 것이 어찌 깨어져
흐르는 아픔뿐이랴
내 全生涯로 지켜서 창으로
남아야 할 소리、소리도 메아리져
떠나는데…
떠나는 江가에서 제 깊이의 아픔을
억제하며 쌓아 올린 저 소리의 가닥、
한 줄기의 빛
나의 가슴에 흐르는 苦痛의 江을
울렁이는 격동이 아니라도 좋다
메말라 속살 터지는 알몸으로서
어차피 떠날 것 다 날려 보낸 후
가슴에 찾아드는 저 眞實의 一音、
永遠히
지워지지 않는 紋身을 위하여
고여서 흐르는
삶 속의 한 줄기 빛이고저
나는 아픔의 둑을 쌓으며
소리의 빛을 모은다.

漢陽·慶熙·仁荷·嶺南大등「前期미달」2차銓衡
淑大물리학과 71對1

1차전형에서 미달된 인원을 채우기위한 일부 대학의 2차전형이 2일상오10시 실시됐다.

이날 전형한 대학은 漢陽大、慶熙大、建國大忠州분교、淑明女大、嶺南大、朝鮮大、仁荷大등으로 모집인원은 5백여명이었다.

漢陽大는 법학과 30명모집에 1백74명이 지원했으나 1백37명만응시, 4·6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淑明女大는 25명모집에 2백77명이 지원해 11대1、물리학과는 3명모집에 2백12명이 몰려71대1의 높은경쟁률을 보였다.

慶熙大는 1백85명 모집에 5백90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 3·1대1로 나타났는데 각계열、학과별 지원현황(괄호안은 모집인원)을 보면 국문과 14(9)▲영문과 20(14)▲이학제1계열 1백42(33)▲법학과 24(18)▲정치신문계 17(13)▲행정과 38(23)▲경상제1계열 28(14)▲경상제2계열 32(24)▲기계과 51(26)▲치의예과 1백42(24)▲화공과 95(6)등이다. 합격자발표는 2월6일.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SHANGHAI RESTAURANT
메 뉴 : 군만두, 전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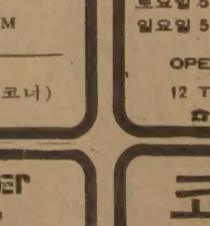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Bay
Temperance St.
Ⓟ
Yonge
King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피로연
— 예 약 환 영 —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목, 금, 토, 일 : 권순근 악단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5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세계의 社会面

브라질에 1백20억弗 相續 소동

巨富 도밍고遺書 "1백년후 後孫에게 주도록"

99년전 사망한 한 브라질 억만장자의 유산상속문제가 뒤늦게 사회의 화제를 이루고있다。

세기의 거부였던 브라질인 도밍고·파우스피노·코레아는 1873년 82세를 일기로 사망했는데 친자식이없던 코레아는 사망14일전 유언장을 작성, 유산을 7명의 친형제에게 물려주지않고 1백년후에 후손들에게 주도록당부했다。

그런데 내년으로 도밍고사후1백년이되는데현재이유산은 그동안의 물가상승에 증식을 거듭한끝에 무려 1백20억달러로 늘어난반면 상속받을 후손들이 너무많은데다 누가 진짜상속자인가 하는것을 가리기가 어려워 문제가 되고있다。3~4대가 흐른 현재 도밍고의 친척이 되는 후손은 대략 1만명선으로알려졌다。

이같은 복잡한 유산상속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나선사람은 변호사 호세·비글리씨。

그는 지난77년부터3년간 도밍고일가의 가계를 추적, 법적상속권자 약4천명을 밝혀냈고 상속자 1사람이 받게될 유산은 적어도 3백만달러(21억원)에 이른다는 계산도했다。따라서 도밍고 후손간에는 이미 유산상속싸움이 벌어져 비글리변호사를찾는 상담자가 하루에도 평균 20여명에 달한다。【外紙】

英語式표현 佛語로 쓰도록

프랑스정부、科學用語부터

프랑스정부는 각종 기술용어에 영어가 너무 많이 침투되고있는 현상을 중시、우선 과학자들의 연구논문들에서 영어식어법을 바꾸기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프랑스정부는 이전에도위크엔드」「파킨」「조깅」등 영어식 표현을 프랑스어로 바꾸기위해 노력을 했으나 실패로 끝나자 대상을 과학용어로한정、강력한 공세를 취하고있다。

첫번째 표적은 프랑스에서 열리는 각종과학회의의 보고서들。

대부분의 프랑스과학자들은 연구보고서를 영어로쓰고 있는데 정부당국은 불어사용지역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의보고서는 반드시 불어로작성해줄것을 과학단체에요청했다。

이와함께 프랑스산업성은 지난 1월 컴퓨터용어의 프랑스어 일람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같은 용어교체가 단순히 영어식표현을 불어식으로 바꾼것일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말하면서 연구논문을 불어로 작성하게 된다면 독자만 줄어드는 결과를 빚게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불어는 현재 국제외교무대에서 영어에 이어 2번째공용어로 쓰이지만 사용인구수로 본다면 영어、스페인어、아랍어、포르투갈어、중국어、소련어、힌두어、일본어、독일어、말레이어에 이어 11번째로사용된다는것이다。【파리=AP】

"담배로 담배를 끊는다"

美 새禁煙方法 카운터·컨디셔닝

◇쉭센터의 카운터·컨디셔닝 치료장면。끽연자는 수북이 쌓이는 꽁초와 눈앞의 거울을 보며 하루1시간씩 5일동안 금연치료를 받는다.

5일간이면 完全斷煙

하루 한시간씩연속吸煙… "끔찍하다"질리게

폐암、기관지염、심장병、폐기종의 주범이란 의학적경고에도 금연을 못하는 사람을위해 「담배로 담배를 끊는」새 금연법이 나와 미국사회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쉭·센터 (Shick Centre)란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 금연법은 하루1시간씩 5일동안이면 된다。두 사람이면 꽉찰만큼 좁은방에서 유리창밖의 지도원이 시키는대로 하면 되는것이다。첫날은 눈앞의 거울을보며 15개비의 담배를 계속피우되 연기를 체내에 흡수하지않는다。첫날부터 흡연가의 팔목에는 불쾌감을 자극하는 배터리밴드가 부착된다。

둘째날은 20~25개비의 담배를 피우되 연기를 모두들이마신다。세째날은 전날과 같은 양을 피우면서 니코틴중독을 막기위해 연기를 도로 뿜어낸다。이때쯤이면 대부분의 흡연가들은 흡연할생각이 거의 없어진다。아직도 흡연의 유혹을 느끼는사람도 네째날 전날과같은양으로 한꺼번에 4개씩의담배를 입에 물고 피우게되면 심한 불쾌감과 고통을 맛보게된다。그리고 마지막날인 다섯째날은 15개비의담배를 피우지만 이때쯤되면 1백명중 94명이담배를 완전히 끊는것으로 밝혀졌다。

연기로 가득찬 비좁은방에서 계속쌓이는 꽁초를 보며 거울을 마주대한 끽연자들대부분은 이「담배로 담배를끊는 카운터-컨디셔닝(Counter—Conditioning)방법」을 거치면 「끔찍하다」、「기분이 몹시나쁘다」는 표현을 할수밖에 없게된다。【LA支社】

中共여성들 西歐化 쌍꺼풀수술 대유행

최근 중공여성들 사이에는 눈 쌍꺼풀수술이 대유행이다。몇년전 부터 여성들의 옷차림과 머리모양이 바뀌어지기시작한데이어 밀려들기 시작한 서구문명의 영향이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는것이다。

이때문에 각지의 성형외과가 성업중인것은 당연하다。

北京의 한 성형외과의사는 『지난10개월동안 무려 1백60명의 여성들에게 눈쌍꺼풀수술을 해주었다』며 자신의 월수입이 공산당 최고간부급과 맞먹는다고 은근히 자랑했다。

쌍꺼풀은 1년전까지만해도 중공에서 「서구자본주의의 사고방식」이라고 신문지상을 통해 맹렬히 비판해왔으나 예쁘게 보이고싶어하는 여성들의 꿈을 막지는 못한것이다。쌍꺼풀수술비는 한화로 1만2천원정도。

이같은 현상과 함께 이번에는 보조개、코수정수술도 하나 둘 늘기시작 또하나의 유행이 생겨날 전망이다。【外紙】

명사 저널리즘

미국의 신문·잡지에는 요즘 가십난이 증가하는추세다。그것도 대중과는 상관없는 유명인들의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루는 소위「명사저널리즘」이 재생하고있는것이다。

특히 잡지계에서는 유명인을 대문짝만하게 취급할수록 짭짤한 재미를 본다는 얘기다。

신문·잡지에 명사저널리즘이 다시 유행하는데는 몇가지 이유가있다。우선 대중사회로 들어섬에따라 명사에관해 알고싶은 욕망이 강렬해진다는점이 꼽힌다。

따라서 명사저널리즘은 일상되풀이되는 따분한 뉴스로부터 대중을 해방시켜주는 구실을 한다는것이다。

명사저널리즘이 활기를띠자 시시비비가 뒤따르고있다。

찬성론자들은 기자들이 일반적으로 추적하는것은 공적생활무대의 중심인물의 사생활이므로 공인의 사생활이나 성생활등의 보도는 좋든나쁘든 일반독자에게 도덕적 기준과 생활의 표준을 음미할 기회를 마련하기때문에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비판론자들은 명사저널리즘이야말로 「무거운 정보」대신 세상잡사얘기만 남발하여 정치적·사회적문제에대한 일반의 관심을 흐려놓는다고 우려한다。훌륭한 언론인은 진정한 본질적문제를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기사화해야하는데 명사저널리즘에서는 본질적문제가 부차적인 것으로 밀린다고 지적한다。하찮은 얘기를 무정견하게 1면머릿기사로 올려놓음으로써 뉴스와 가십의 차이를 혼란시킨다는 것이다。소식통이름도 없는 안이한 보도로 피소되는 것도 취약점의 한예。

워싱턴·포스트紙의 가십난「귀」가 카터행정부 말기 백악관을 방문한 레이건대통령당선자부처 얘기를 다루면서『블레어·하우스(영빈관)에 유숙하던중 도청당했다』는 허무맹랑한 보도를해 제소당할뻔한 일도 비판받는 명사저널리즘으로꼽힌다。

명사저널리즘은 일시적 유행현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그러나 대다수의 신문연구가들은 가십과 명사저널리즘의 성행으로 국가적인 중대사가 있을 경우에도 유익한 정보대신 시시콜콜한 얘기나 뿌려질 가능성이 없지않다고 걱정한다。우리도 한번 반성해볼 문제가 아닌가한다。【金善敎기자·外信部】

술 1조2천752억어치마셔

國稅廳、작년도 消費量 집계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신 술소비량은 모두 2백53만2천1백20kℓ로 出庫價로 환산할 경우 1조2천7백52억6천85만원어치나 되는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酒類중 지난 한햇동안 가장 많이 소비된 술은 탁주로 1백35만8백69kℓ였고 그다음이 맥주로 58만7천kℓ、소주가 53만1천8백43kℓ、기타 再製酒가 3만1백14kℓ、청주가 1만7천2백40kℓ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藥酒는 3천6백98kℓ가、과실주는 3천3백21kℓ、위스키는 3천2백63kℓ、고량주는 2천9백12kℓ、銘藥酒는 1천5백8kℓ、인삼주는 2백44kℓ、브랜디는 1백1kℓ가 각각 소비됐다。

소비증가율을보면 기타 재제주가 지난80년보다 55·2%가 증가、가장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이 과실주로 15·8%、소주가 7·5%、맥주가 1·3%씩 각각증가했으며 청주·위스키·고량주등 기타 술들은 모두 소비량이 지난80년보다 줄어들었다。

이에따라 지난 한햇동안의 술소비량은 전년동기보다 줄어 전년동기의 99·3%에 불과했다。

한편 우리나라 인구를 3천8백72만3천명(81년7월1일기준)으로 기준할 경우 일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소주가 38·2병(2홉들이)이었고 맥주는 23·7병(4홉들이)이었다。

케네디大統領의 딸 캐럴라인 3월結婚

고 존·F·케네디 대통령의 딸 캐럴라인양(24)이 오는 3월에 시집간다。

신랑은 뉴욕의 미술가인 에드윈·슐로스버그(35)。

케네디가에서는 영국황실에 필적할 화려한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다。

最優秀 印「차우린지36番線」

제1회 마닐라 국제映畵祭

印度영화「차우린지36番線」이 제1회 마닐라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으로뽑혀 황금독수리상을 수상했다。

또 최우수남우상은 뉴질랜드의 브루노·로렌스(부서진 궁전)가、최우수여우상은 소련의 이유드미라·구르첸코(직공 가브리노프의 사랑받는 아내)양이、그리고 최우수감독상은 유고의 고란·마르코비크(八方미인)가 각각 차지했다。

지난18일부터 열린 마닐라 국제영화제는 29일하오 아카데미시상식과 비슷한 분위기의 시상식을가졌는데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시상하기도했다。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차우린지 36番線」은 한 英印혼혈교사를 주인공으로해서 그가 겪는 갈등을 그린것이다。또 영화「프랑스 육군중위의여인」은 뛰어난 시나리오와 촬영및 편집으로、濠洲의 갈리폴리는 창의적인 기술로、폴란드감독 J·마크룰스키는「바벨크」로 심사위원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馬尼】

583·2861

나의 이력서

(題字·元一漢)

元一漢 ㊹

85일간의 航海

도중 美船 옮겨타 安堵의 숨

일본 요꼬하마에서 교환선아사마마루에 승선한 미국인은 9백명에 달했다。9백명 전부가 미국인은 아니고 일본에 근무하던 남아메리카 몇나라의 외교관도 포함돼 있었다。

영국사람인 장인 헨리·데이비슨 장모 진·매킨夫婦는 이배에 타지못했다。영국인을 위한 다른 교환선이 있다고 해서 헤어질수 밖에 없었다。

전쟁중에 교환선이 제대로 떠날지도 모르는데다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기약없는 이별이었다。

아내 준·비다·데이비슨(한국이름 태요 한)은 감정을 밖으로 나타내는 성격이 아니라서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으나 그 심정은 짐작키 어렵지 않다。

장인·장모는 둘째딸인 아내를포함、4남매(1남3녀)를 두었는데 위로 두딸은 출가하고 아래로 남매는 미리영국에 보내두었기때문에두부부만 요꼬하마에 남게됐다。

나중에 안일이지만 이들 老夫婦는 한달쯤지나 교환선을 탈수는 있었으나 전쟁이 극심한 영국에 들어가질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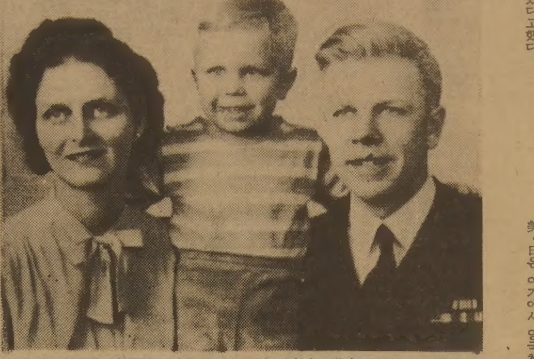
결국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근처에서 머물수밖에없었고 거기서종전을 맞이했다。그후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이민、샌프란시스코에서 살다가 62년께 별세했다。

일본당국은 우리들을 아사마마루에 승선시켜놓고도 꼬박 한주일간을 출발시키지않아 불안하기 그지없었다。갖가지 소문이 나돌기까지했다。美·日간의 교환합의가 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소문도있었다。

이때 불안기가 얼마나 심각했느냐하면 배가 떠나지않고 다시 일본땅에 상륙할 경우 자살하고 말겠다는 사람까지 나올정도였다。

드디어 그해 (42년) 6월17일 새벽2시 엔진소리가났다。배는 먼저 上海로 갔다。上海에는 중국에있는 미국인들을 집결시킨 또 한척의 교환선이 기다리고 있었다。이탈리아배 콘테·베르데號엔 7백명이 타고 있다고했다。

두 배는 홍콩에서 기다리는 미국인들과합류、사이공싱가포르를거쳐 인도양을 횡단、그당시 포루투갈領 동아프리카(현탄자니아)에 있는 로런스·마르키스港에 도착했다。美·日은 여기에서 양국체재국민들을 교환하기로 돼있었던것이다。



◇내가 해군에 입대한 다음해 태어난 장남 漢光(현재 延世大교수)。내 미국이름이 할아버지 (元杜尤) 이름과 똑같듯이 漢光의 이름 도그의 할아버지인 Horace Horton Underwood (元漢慶)와 똑같다.

뉴욕에 到着해 海軍에 入隊…日語 더배워

우리들이 바꿔탄배는 미국정부가빈 스웨덴관광여행선 그립스호름號였다。

아사마 마루의 9백명、콘테·베르데號의 7백명등 모두 1천6백명을 태우고도 자리가 빌정도로 그립스호름號는 큰배였다。

배를 바꿔타고나니 미국에 다온거나 다름없이 마음이 놓였다。그립프스호롬號식당에서 흰빵을 대했을때 진짜빵이 이런거구나 하는 감탄이 쏟아졌다。일본배 아사마마루에서는 추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회색밀가루빵을 늘 대접했었다。

그전까지는 빵은 그런색깔이려니 생각했으나 막상 미국의 흰빵을 앞에 대하고보니 아사마마루에서 먹은 빵은 흰색이 아닌 회색이었던것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로렌스·마르키스港을 출발한 우리들은 남대서양을 횡단、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이지역 외교관들을 내려주고 뉴욕으로직행했다。

카리브해역을 지날때는 독일잠수함에 피격당한 여러척의 군함잔해가 눈에띄어 얼마전 이곳에서 벌어진 海戰의 양상을 짐작할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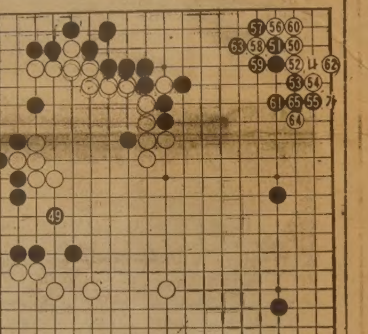
우리가족이 뉴욕에 도착한 것은 그해 8월25일、한국을 떠난지 85일만이었다。미국에 도착하는 길로 해군에 입대원서를 냈다。

전쟁중에는 당연히 징병되게마련이나 자원입대한 이유는 내가 한국에 있을때 배웠던 일본어실력을 활용할수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원한대로 콜로라도주립대학부설 미해군일본어학교에 배속돼 거기서 14개월동안 군사교육을 받았다。기혼자에게는 영외거주가 허락됐다。

第13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2局 第4譜 49~65 (각 5시간 덤 5집반)



白 (6段) 姜哲民〈0勝3敗〉
黑 (4段) 鄭壽鉉〈1勝2敗〉

黑49를 본 姜6단은 이때도『바둑이、바둑이…』하며 고개를흔든다。여전히 뜻과같지 않다는 표정이다。

그럴노릇이 당초 좌상귀정석은 白이 불리한것인데도 굳이 세를쌓았는데 그세가 한껏 유린당했으니 무리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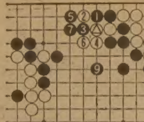
결국 좌변의 손실을 보상하듯이 우상귀에 白50。적시침입이며 이런형에서는 최대의 곳이었다。

黑51쪽은 正手。이하白54로 젖히고 黑55로 이단젖힘할때 白56、58의형을 택하여 黑65까지 누가두어도 이렇게될정석의과정이다。그러나 국후에는 이과정에서 白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白58로 젖힌점을 黑63으로 끊따내게한것이 의문이란 얘기다。그렇다면 白62를 달리두는 수는 없었는가。趙8단을 비롯한 고단자들은 白62로 일단63자리에 뻗는참고도를추천하고있었다。

귀살이 공정의 문제점

黑1을 △표로 종용한다음이 黑7까지 교환해놓고서 白8로 살아버리는 것이다。



이참고도라면 白6까지된 모양에서 장차어떤맛을 노릴수도 있으니 실전보다유리하다는 理論이된다。

뿐아니라 白62의 호구는 장차黑「가」에 내려서는 선수가있으므로이런곳은「나」자리를 파이어야 正手였다고 한다。

그러나 白은 선수로 귀를점령하여 만족인데 다음이 작전의 기로이다。【一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6>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숨바꼭질 ⑬

『명자 일때문에 시내 나가셨었다면서요?』

수지는 옷핀으로 손톱밑의 흙을 후벼파며 말했다。

『누가 그래?』

유원장이 울컥하면서 역정스럽게 말했다。

『사모님한테 다 들었어요。금반지때문에 큰 욕이나 안보셨나 몰라요』

『금반지는 명자가 훔친게 아니었어。찾았대。주인남자가 콩나물을 먹다가 금반지를 뱉아냈다는군。아마 나물 무칠적에 빠뜨린 모양이야』

『그럼 나물 무치다가 잃어버린 걸 그 나물을 먹을때까지도 못참고 선생님을 불러냈나요?경망스러운사람들이군요』

『경망스럽긴 하지만 음흉하진 않아서 그래도 다행이야。음흉했으면 금반지를 찾고도 못찾은 척 했을지도 모르잖아。경망스럽게 법석을 떤 자기네 체면때문에 가엾은 애하나도둑 누명 씌우는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사람도 얼마든지 있거든』

유원장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우울한 소리로 말했다。그런 유원장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참을수 없는 수치심과 증오와 연민의 감정이 겹겹으로 죄는 것같아 수지는 항의하듯이 악을 썼다。

『그런 집에 그 못난이를 그냥 두고 오시면 어떡해요?당장 데리고 나오시지 않구』

『그만하면 괜찮은 집이라니까。그만 일로 아이들을 도로 데려오기 시작하면 난 또 고아원을 차려야 될걸。어떡허든 난 이 고비를 마음 모질게 먹고 넘겨야 돼』

유원장이 스스로의 모진 마음을 열어보이듯이 몸서리치며 말했다。

포장이 안된채 터 없이 넓기만한 황토길은 버스종점에서도 한참 더 멀리 뻗어있었다。그 멀리서 황토흙이 맥열한 뭉게구름을 일으키며 지축이 울렸다。이어 군용트럭들이 줄 지어 지나갔다。그들이 걸터앉은 논두렁이 셀루로이드 판대기처럼 떨었다。땅의 신경은 예민하다못해 경망스러웠다。뭉게구름이 가라앉고 다시 황토길이 드러날때까지는 한 없이 오래 걸렸다。

희디 흰 국도、오욕이의 손목、낯선 사람들、기총조사의 꽝음、무참히 으깨져 피투성이가 된 엄마의 육신、할머니와 오빠의 울음소리、그리고 대낮의 섬광(閃光)처럼 불길하고 은밀하게 번득인 천벌이다 아아 천벌이다하는 깨달음、목이의 가냘프고 차가운 손목…그런 영상들이 몇번 반복해 지나갈만큼 오래 걸렸다。

『그렇게 싫어하시면서 고아원 하실줄을 미처 몰랐어요』

지상의 뭉게구름이 걷히자마자 수지는 이미 없어진 유선생의 몸서리를 붙들고 늘어지듯이 따졌다。

『고아원이 싫어서가 아냐。때가 됐기 때문이야。제 속으로 낳은 자식도 그만큼 길러줬으면 떼어놓을 때가 됐어。더 오래 데리고 있으면 고아원이 아니라 소년원이 되고말아』

『그건 선생님이 새로운 고아를 안받으셨기 때문이지 고아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잖아요。전쟁은 벌써 끝났지만 고아원이 문닫을만큼 고아의 씨가 마른건 아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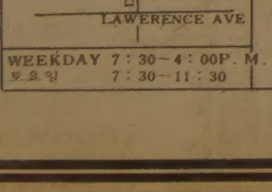
『자선사업인지 고아원인지 하는 나한테 안어울리는 그 아니꼬운 짓거리를 전쟁 고아만으로 끝내고싶어。그리고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개획된 거지 요새 이곳 땅값이 올라 나에게 뜻하지않은 큰돈이 굴러들어온 것하곤 상관 없는 얘기야』

LOEB
CASH "N" CARRY

우리는 3개의 장소를 이용하여 친절하고 예의 바른 자세로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을 깨끗하고, 넓은 복도위에 가득채워 놓았읍니다. 물건의 구별을 쉽게하기 위해 케이스를 손색 쪼개 진열해 놓고 염가로 봉사코자 하오니 오셔서 구경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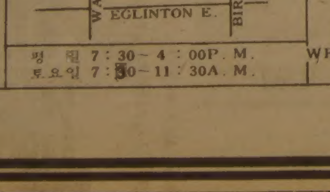
또한 우리는 매주마다 스페샬품목을 정해놓고 판매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요.

20 ORFUS RD. 782－8851
죠지 또는 그래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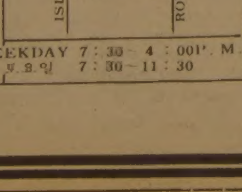
WEEKDAY 7:30~4:00P.M.
토요일 7:30~11:30

55 BERTRAND 752－7292
노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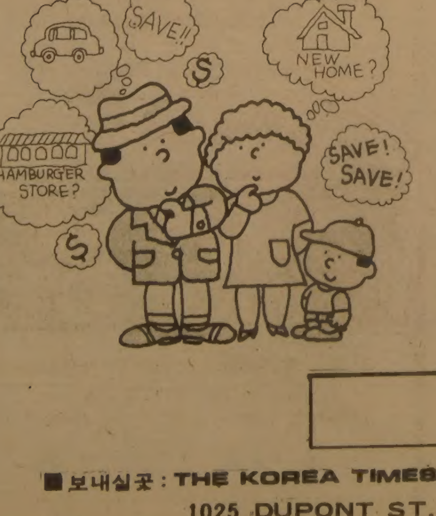
평 일 7:30~4:00P.M.
토요일 7:30~11:30A.M.

160 EVANS AV 255－6366
후랭크 또는 할리



WEEKDAY 7:30~4:00P.M.
토요일 7:30~11:30

5일에 $13 로
원하시는것을찾으실수있읍니다.



★사업체 매매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등 모든것을 사고 파실때는 우선 한국안내 광고를 이용해 보십시오. 5일에 $13로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광고문안을 아래 네모칸에 알맞게 적으셔서 CHECK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우편이 접수된 다음날부터 게재됩니다.

•1칸：5일－$13 두칸：5일－$26 세칸：5일－$39

1칸

■보내실곳：THE KOREA TIMES AD. DEPT.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30, 630-8491

구 인

스토아 매니저 구함, 또는 가게를
팔수도 있음
(SMALL DOWN PAYMENT)
☎ : 1-514-637-6444

경험있는 남자 헬퍼구함.
(Full 타임)
☎597-1115(Mr. 박)

동부지역에있는 가게에 오후7시이후 파타임 캐셔로
일하고자함 ☎ : 421-6000(EX. 323)오후5시까지
293-6138오후5이후

스토아 캐쉬어 구함.
(영 × 에그린톤)
☎251-7031(5시 이후 연락바람)

자동차 메카닉 헬퍼구함.
중앙오토 써비스
☎ : 532-3946

건강, 사업, 결혼, 애정문제에 걱정이 있으신
분은 지금곧 "마리수"를 찾으세요.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릴것입니다.
☎ : 463-9138

아기 맡기실 분은 연락바람
스카브로 센테니엘 병원 앞
☎ : 284-4575(MR. LEE)

경험있는 바느질및 재봉사구함
나일론스포츠옷감임
신청 : 42 GLADSTONE AVE. (퀸×더프린)

FLOOR LADY 또는 MAN구함(수퍼바이저)
스포츠옷 공장에서 일을 보실 능력있는 분
위치 : 퀸×더프린
신청 : 42 GLADSTONE AVE.
전화 : 537-0400
신청시간 : P. M. 5 : 00~7 : 00

매매및 양도

"꿀"팝니다(토종꿀과 로얄젤리)
30 DEWSON ST. (오싱톤×칼리지)
반드시 영어로 문의하실것 ☎ : 534-0563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8,000, 머신 $800, 렌트 $550 살림집 포함
☎ : 1-367-3983 권리금 $10,000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주매상 $4500, 아스킹
$41,000, 렌트 $400, 리스 1+5(NO HEATING)
☎ : 221-2084

성업중인 가게급매
$65,000, (KEELE & SHEPPARD)
☎ : 633-7222

COMMERCIAL BUILDING과 COIN LAUNDRY
편안하고 안전한 비지네스
사정상 급매코저함.
(블루어 × 오싱톤)
☎ : 532-7094(낮), 241-8058(밤)9시30분까지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 크리닝을 겸해
할수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 (베더스트×로렌스)
오전10시~오후8시 ☎ : 783-0134

서 쪽지역의 버라이어티 스토아를 사고자 함.
파 실분 연락 바람.
☎749-9649 Mr. 임

"집을 팝니다"
- 4베드룸, 쎄미 디태취
- First 몰개지 $31,000 (Aug. 83)
- 가격 $79,900
- 미시사가 지역.

☎(B)752-6702, (R)275-1499(Mr. 박)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주매상 $7,000, 렌트 $700(월), (2 베드룸 아파트포함)
포함), 리스 5년+5년 옵션, 아스킹 $70,000+스탁.
☎ : 769-5956

집안사정으로 급히 버라이어티가게 팝니다.
렌트 $570(월) 리스 5년 + 5년
주매상 $5,200 ☎298-7635(Mr. 정)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가게
주인이 병환으로 급매코져함.
주매상 $6,000 ☎486-6455

자동차 급매, 75년형 로얄 모나코 A-1 콘디숀.
3~4년은 아무 이상없이 탈 수있음. 가격 $950
☎ 530-1491

하이웨이 24, 89, 10(SHELBURND)에 버라이어티
스토아 붙은 가스 스테이션, 코너위치, 년매상
100만달러, 총수익 10만달러, 순수익 6만달러,
권리금 6만달러+스탁, 곧 몬트리얼 은행이 개점
하므로 더욱 매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좋은위치임 ☎ : (519) 925-5210
MRS. 윤. 오후3시 이후연락바람

구독신청(월~토)
☎ : 533-2361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하우스 렌트

교통 편리한곳에 2베드룸(2, 3층)세놓음.
집주인 좋음 월 $420
☎ : 532-9139 (Mr. 로드리고)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사 진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시설및 수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인벤토리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주소를 이전하실때 3일전에
꼭 변경통보를 해주십시요.

양 장 점

셈터의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8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운전학교

오행근 운전학교
423-3035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ROGERS GARAGE 변 달 환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라지에타(개스탱크, 히터,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EDIATOR CO.
☎ : B)245-1978 R)248-6032 김용환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은 꽃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넘파·김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Mr. LEE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완치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3-7300 MISSISS.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옆

기 타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ZAP SUREKILLER 8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토요일도광고접수
(416)533~2361~4

流星의 賦
<299>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雅와 策謀 ㉚

히데쓰구의 사후, 그의 처첩과 그녀들이 낳은 아이들은 성별(性別) 관계 없이 모조리 살육되었다.

형장(刑場)은 경도의 산죠오가와라(三條河原)였다。둘레에 60m 사방의 굴을 파고 울타리를 만들었다。

형의 진행이 있은것은 8월2일。취락제의 남문에서 소복한 여자들을 쫓아 내어 문전에 대기하고 있던 자들이 아무렇게나 그녀들을 끌어 수레에 싣고 형장으로 옮겼다。

형장의 남쪽엔 토단(土壇)이 마련되어 그 위에 목이 하나 놓여 있었다。히데쓰구의 목이었다。

『저걸 모셔라, 저걸 모셔』

하고 여자들을 울타리속으로 몰아 넣었다。드디어 울타리 문을 닫고 살육이 시작되었다。형리(刑吏)들은 여자들을 쫓아 불끈 칼로 찔렀다。2、3세 되는 어린아이를 어미앞에서 개를 죽이듯 찔러죽이곤、그것을 보고 기절한 어미를 다른 형리가 붙들어 세워 목을 쳤다。

이씨노다이도 그 딸도 예외가 아니었다。모녀는 사세(辭世)의 노래를 준비하고있었다。딸의 노래는 이렇다。

「숱한건 오직 어버이와의 이별이라고 들었는데 갈이 가게 되고보니 이 이상의 기쁨이 없도다」

형은 이처럼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수만의 관중이 형장을 둘러쌌다。특히 형장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산죠오교(三條橋)는 밀려든 사람 때문에 교각이 무너질까 두려울 정도 였는데 그들의 누구도 그러한 형이 무엇 때문에 시행되는 것인지, 천하에 대해 무슨 효과를 기대하고 공개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이욱고 처형은 끝났다。이미 파놓은 굴속으로 히데쓰구의 목과 더불어 그들의 시체가 던져졌다。흙이 덮어지고 그 너미위에 한개의 석탑이 섰다。

『히데쓰구 악역총(秀次惡逆塚)』

그비에 새겨진 문면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먼 훗날의 얘기고 홍계남을 대하고 있을 무렵의 히데쓰구는 일본천하의 반쯤을 장악하고 있을 때이다。그가 하고자 해서 안되는일이 없었던 것이다。

히데쓰구는 다시 대배(大杯)를 들어 계남에게 권했다。

『홍공이 야마시나에 거처하여 풍류를 즐기고, 나는 한성(漢城)으로 가서 그곳 풍류를 즐길 수 있도록 되면 세상은 가히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소』

계남은 한주한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술이 취해감에 따라 히데쓰구의 말이 요령부득하게 되어 갔기 때문이다。

『내게 청만 하시오。황금이건 백은이건 소청대로 드리리다』

하고 히데쓰구는 측근을 부르더니 황금 궤짝을 당장 눈앞에 갖다 놓으라고 했다。

이윽고 날라져 온 궤짝엔 꽉차게 황금이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홍공, 이것을 홍공에게 드리겠소』

히데쓰구는 호방하게 웃었다。

『사양하겠옵니다』

단호한 한마디를 뱉어놓고 오늘밤의 대접에 사의를 표하곤 홍계남이 일어섰다。

『홍공 왜 이러시오。오늘밤 우리 장야(長夜)의 연(宴)을 취시다』

하고 계남의 소매를 잡는 히데쓰구의 손을, 실례가 되지않게 살며시 풀곤 걸어나왔다。

중앙 AUTO 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 : 532-3946 김창세